

동북아시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역사포럼과 평화순례

주 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아시아 평화광장 위한
세계NGO역사포럼
World NGO History Forum for Peace in East Asia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주 관 (사) 동학민족통일회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Donghak National Unification Confe 1403호

Tel 02)732-5541 / 02)738-6623

Fax 02)732-5402

홈페이지 <http://donghaktongil.or.kr>

이메일 donghaktongil@gmail.com

hanwool-y@hanmail.net

동북아시아 평화의 광장을 만들어 가는
역사포럼과 평화순례

주 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아시아 양자국 협력
세계NGO역사포럼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주 관 (사) 동학민족통일회

목 차

- 5 인사말 /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박남수
- 7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과 제노사이드 성격 / 신영우
- 27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의 출진과 '카이난_{海南} 신문'의 보도
/ 오노우에 마모루(尾上 守)
- 47 일본어 원고
- 63 충북의 동학농민혁명 주요 유적지
- 93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안내

인사말

동북아시아 평화시대로의 장정 시작하며



박 남 수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의장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농민혁명과 제국 일본을 주제로 순례와 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동북아 3국의 각축이 현실화되는 기점인 청일전쟁과 그에 앞선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싼 일본과 청국(중국)의 경쟁,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의 행적과 그에 대한 조선 민중의 대응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1894년 당시 조선의 민중들은 ‘동학’으로 사상적, 조직적 결집을 이루면서 내적으로는 국정을 개혁하고 외적으로는 자주적인 근대화를 위한 모색을 하던 중, 한반도를 제국주의적 성장(일본) 혹은 제국 체제 수호(청국)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는 청국과 일본의 견제 속에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청일전쟁과 동학농민혁명(동학농민군-일본군)의 전투에 참가했던 청국군, 일본군, 농민군들의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편성, 동원되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전투에 임 하였으며, 전투 종료 후 그들은 어떻게 되어 갔을까를 이해하는 것은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한 전후 동북아의 공통된 역사를 이해하며, 동북아 3국 시민, 청소년들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 토벌(남한대토벌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일본국 후비보병 19대대는 1894년 당시 당시 일본 에히메(愛媛) 현에서 현지의 농어민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그해 11월 인천에 도착한 이래 1개월 여에 걸쳐 동학농민군과의 전투를 진행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일본인 오노우에 씨와 한국인 신영우 교수, 박맹수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속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오노우에씨와 신영우 교수를 모시고 그들의 연구 성과를 듣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새로운 연대를 구성하는 장정의 첫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 인류 평화의 새로운 문명 건설을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과 더불어 지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과 제노사이드 성격

신 영 우 | 총 북 대

차 례

1. 머리말
2.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일본군 증파과정
3. 동학농민군의 대규모 학살과 제노사이드
4. 맺는 말

1. 머리말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볼 때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이 있다. 한국사회가 전근대 단계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수행해야 했던 시대 과제, 즉 우리 사회의 근대화와 자주 독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희생된 사건들이다.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이 사건들의 중심에는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 지배과정이 있었다.

2007년 10월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에서 ‘항일민족운동과 일제의 한인학살’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때 다룬 사건은 동학농민혁명, 전후기 2차례의 의병 봉기, 3.1운동, 러시아 연해주의 4월 참변, 경신참변 등이었다. 항일민족운동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룬 학술대회였기 때문에 일제 군정에 의한 학살사건이 중심이 되었다. 이 학술대회의 요점은 일본의 침략과정에서 대규모 학살이 시작되었고, 식민지 무단지배에 대한 완강한 저항을 탄압하면서 학살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었다.

일본군정이 학살했던 조선인은 민간인이었다. 경북궁 수비병은 1894년 6월 21일 경북궁을 공격한 일본군을 막지 못하고 패산하였고, 경군 정예병의 군영인 장위영은 같은 날 일본군에게 기습당해 무장해제되었다. 전면전도 치루지 못하고 일본군에 궤멸된 것이었다. 그 후에 일본군을 축출하려고 봉기한 것은 민간인이었다. 동학농민군과 의병은 정부가 통수하지 않는 민간인 결성한 무장단이었다. 이들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대거 학살된 것이다.

이러한 학살을 모두 제노사이드(genocide)¹⁾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제노사이드란 말은 “단순히 역사적 사회적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적 범주가 아니라,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범죄에 관한 법률적 개념”²⁾으로 만들어졌고 사용해왔다.³⁾

1) 집단학살(集團虐殺)로 번역되는 이 말은 “그리스어로 민족, 종족, 인종을 뜻하는 Geno와 살인을 뜻하는 Cide를 합친 말이며, 고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2) 최호근, 「제노사이드란 무엇인가?」 『독일연구』 제8호. 이 논문에서 필자는 20세기에 들어와 격렬하게 전개된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樞軸國, Axis Powers)이 벌인 전쟁은 이전 전쟁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Raphael Lemkin, 1900-1959)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당사국들

19세기는 전 세계에 걸쳐 폭력이 지배하던 시대(the age of violence)였고, 20세기는 전쟁의 세기(century of war)였다.⁴⁾ 19세기에 횡행한 폭력은 제국주의국가들이 서로 간에 전 세계에서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과 약소국가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저항을 제압하는 군사작전을 통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나치스가 지배하던 독일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주민을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집단 학살 등이 그러한 전쟁이었다.

나치 지배 하의 독일뿐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침략전쟁을 벌이고 지배하던 일본도 침략지역의 주민들에게 전쟁을 벌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조선과 청국에 파견된 일본군이 범한 수많은 학살 사건들은 정부나 관군이 아닌 그 지역 주민 또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였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 의해 초래된 동학농민군의 대규모 학살 사건을 제노사이드 성격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 먼저 동학농민군의 진압을 위해 일본군이 증파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다음에는 일방적인 학살이 벌어진 내용을 간략히 들어본 뒤 이를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2. 동학농민군 진압을 위한 일본군 증파 과정

일본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조선에 개항을 강요했다. 그 후 조선 내에서 세력을 확장해 침략의 첫 단계를 밟던 일본은 1882년 임오군란과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과의 전쟁을 결정한 메이지정부는 10년 간 청을 가상적국으로 국력을 기울여 신식 군대를 대폭 중강하였다. 마침내

의 군대 간 벌였던 전쟁이 아니라 그러한 과거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민들에 대한 전쟁(a war against peoples)’라는 것이었다.

- 3) 유엔총회에서 1948년 12월 9일 「집단 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통과되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 4) 캠브리지 역사 시리즈 중 19세기와 20세기 역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제목들과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사를 저술한 역사가들이 규정해온 용어들이다.

1888년 육군 7개 사단, 보병 14개 여단, 기병 2개 대대, 공병 6개 대대, 치중병 6개 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⁵⁾ 해군은 청의 북양함대와 맞서기 위해 3,000톤 내지 4,000톤급 함정(浪速, 橋立, 扶桑, 松島, 嚴島, 吉野, 八重山, 高千穂號 등)도 여러 척을 보유하였다.

1894년 봄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기회로 일본은 조선 정부의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군대를 서울에 진주시켰다.⁶⁾ 처음부터 청과의 전쟁을 목표로 파병한 것이었다.⁷⁾ 조선의 군사력은 일본과 맞서 싸울 수준이 아니었다. 오오시마 요시마사(大島義昌)가 지휘하는 혼성 제9여단 병력이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새벽 3시간에 걸친 공격 끝에 경복궁을 점거해서 국왕을 인질로 삼고 친일개화파 정권을 세웠다. 경군 병영은 피습당하고 무장 해제되었다. 일본은 강제로 공수동맹(攻守同盟)⁸⁾을 체결해서 청과의 전쟁에 협력하도록 했다. 경군은 일본군을 도와야 했다.

攻守同盟

第一條 此盟約의 目的은 淸兵을 朝鮮境外에 撤退케 ㅎ、야 朝鮮國의 獨立自主를 鞏固케 ㅎ、고 또는 朝鮮 日本 兩國의 利益을 增進케 ㅎ、ㄴ 事

第二條 日本이 淸國에 對ㅎ、야 攻守의 戰守를 ㅎ、ㄴ에 ㄴ、ㄴ 朝鮮은 日本兵員의 進退 及 準備糧食에 可히 便宜를 與ㅎ、ㄴ 者ㄴ、ㄴ 힘써 ㅎ、ㄴ 事

청일전쟁은 6월 23일(양력 7월 25일) 아산 앞바다의 풍도해전에서 시작되었다. 일본군의 잔인성은 이 풍도해전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이 함장으로 지휘하는 일 군함 나니와(浪速)호가 청군 1,500명이 탄 영국 국적의 수송함 고승호(高陞號)를 침몰시켰는데⁹⁾ 일본군은 보트를 내려 바다에 빠져서 허우

5) 藤原彰 저, 嚴秀鉉 역, 『日本軍事史』 戰前篇 第3章 天皇制 軍隊의 成立 71쪽, 1994, 時事日本語社

6) 陸奥宗光 저, 中塚明 校注, 『蹇蹇錄』 제2장, 2007, 岩波書店

7) 藤原彰 저, 嚴秀鉉 역, 위 책, 102-103. 일본군 작전계획의 핵심은 “제5사단을 조선에 보내 청군을 견제하고, 해전을 통해 황해와 발해만의 제해권을 획득한다. 제해권을 장악하면 육군 주력을 발해만에 보내서 화북평야에서 대결전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8) 『주한일본공사관자료』 제4권 참조

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淸運送船 高陞號 격침과 便乘한 獨逸人 한네켄 氏의 筆記寫本入手」

적거리는 청군을 접근 사살하여 살육한 것이다.¹⁰⁾

그 나흘 뒤 일본군은 직산 성환역에 주둔한 청군을 공격해서 승리하였다. 아산을 거쳐 공주로 후퇴한 청군 4천명은 청주와 충주를 지나 강원도로 우회하여 북상하였다. 청군은 평양에서 증파된 군대와 합류하였다.

당시 평양감사 민병석은 청군을 지원하였다. 그는 일본에 의해 축출된 여흥 민씨 척족세력 중 한 사람이었다. 민씨 척족의 중심인물인 민영준은 유배지에서 빠져나와 평양으로 들어갔다. 대원군도 청군이 일본군을 축출해 줄 것으로 생각해서 청장(淸將)에게 서한을 보냈고, 평양 감영에 소속된 군대도 청군과 합류하였다.

일본은 히로시마에 전쟁 지휘부인 대본영을 설치해서 7월 하순 5사단을 조선에 파견하였다. 부산과 원산으로 나누어 상륙한 5사단은 평양에 육박해서 청군과 대치하였다. 8월 초에는 제3사단 절반을 증파하여 병력을 19,600명까지 늘리고,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1군을 편성하였다. 양력 8월 1일 청일 양국은 비로소 선전포고를 하였다.

개화파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경군은 일본군을 도와야 했다. 장위영 소속 이두황(李斗璜) 등은 노즈 미치츠라(野津道貫) 제5사단장을 수행해서 일본군과 함께 평양까지 가서 지형과 청군 상황을 탐지하는 정탐꾼 역할을 맡았다.

“일본 군함이 운전을 개시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 배의 右舷 정면 대략 150m되는 거리에 도달했을 때 운전을 멈추었다. 여기서 나는 그 艦의 水雷口로부터 수뢰가 튀어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 다음 곧 6개의 포문을 열었는데 수뢰가 우리 배에 도달하기 전에 굉장히 큰 소리의 포성이 두 번 일어났다. 그리고 수뢰는 우리 배의 중앙인 석탄창에 적중했고 백주대낮이 순식간에 어두운 밤으로 되어 炭粉·木片이 翻浪하는 파도와 섞여 하늘 높이 치솟았다. 여기서 우리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쳤다. 헤엄을 치고 있는 사이에 나는 우리 배가 침몰하는 것을 보았다. 船尾가 먼저 침몰했다. 이 사이 발포가 계속됐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도 살아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안 배위의 병사들은 분연히 포격에 대항해서 총을 쏘았다. 나는 일본 군함에서 보트를 내리고 다수의 병사를 태우고 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우리 배의 殘兵들을 구조하기 위해 오는 것으로 믿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았다. 보트에 타고 있던 병사는 침몰하고 있는 배위의 잔병들에게 사격하였다. 나도 바다 속에 있던 한 사람으로 일본 군함과 침몰선의 병사로부터 저격 받은 것은 사실이다. 대개 침몰선의 병사가 저격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면치 못할 바에야 동포도 역시 살려 둘 수 없다는 잔인한 생각에 기인한 것 같다. 고승호는 水雷가 발사된 후 대략 반시간쯤 해서 완전히 침몰하였다.”

10) 전쟁 상대국이 어느 나라이든 해전을 벌인 후 바다에 빠진 적대국 해군 병사를 구조하는 것이 미덕인데 일본 해군은 반대였다. 그래서 청군은 섬까지 수영해 와서 살아남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산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야마가타 1군사령관의 지휘로 평양을 공격한 일본군은 치열한 공방전 끝에 9월 16일(음력 8월 17일)청군을 궤멸시켰다. 평양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후퇴하는 청군을 따라서 북상을 기도하였다. 압록강을 건너 청의 영토에 들어가 결전을 하려는 것이었다.

바로 이때 일본군은 후방에서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것은 동학농민군이 군용전신선을 절단해서 통신을 두절시킨 것이었다. 군용전신은 청과 전쟁을 하는 일본군이 대본영에 전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신경망이었다. 일본군 5사단의 「진중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9월 25일(음력 8월 26일) 일본군 평양 출발 安州로 향함

9월 26일 대본영에서 후비보병 1대대 서울에 보낸다고 통보, 원산 일본영사관 및 거류민 보호를 위해 후비보병 1개중대 파견하는데 이 중대는 대본영 직할

9월 27일 오후 10시경부터 낙동 이남 전신 불통, 제3野戰 電信隊 黃州에서 12浦 사이 전선 가설

9월 28일 후비보병 제6연대 제2대대 본부 및 8중대 평양도착

9월 29일 평양송신소에서 문경 이남 전신 불통 보고

10월 11일(음력 9월 13일) 낙동 이남 전신 불통, 10월 12일 낙동 이남 전신 통합

10월 13일 安定 洛東 간 오전 5시경부터 전신불통

10월 16일 동학당 정토를 위해 수비대 2소대를 파견 大鳥 公使로부터 전보

11월 4일 야부키 히데가즈(矢吹秀一) 공병부장 야마가타 군사령관에게 조선국내 전신 문
제 상신 - 조선국내를 통과하는 전선을 동 국민에게 방해를 받아 軍機를 그르침.
군대가 감시해야 하며, 조선정부와 다음 요지로 법을 설치하여 엄히 협의. ① 기
설 전선과 신설 전선이 통과하는 부현(府縣)의 촌락은 구역을 정하여 보존 책임 분
담. ② 전선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해의 다소를 논하지 않고 모두 아군의 요구에 따라
조선정부는 그를 사형에 처할 것

바로 일본군이 청국으로 진공을 앞둔 긴장된 시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부산에서

평양에 이르는 군용전신망은 병참선과 동일한 요지에 설치된 것이었다. 전신선 가설과 복구를 책임진 공병부장이 상신한 방법은 조선 정부에 책임을 지우고, 군용전선을 해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강력한 것이다.

이 사태를 심각하게 파악한 것은 일본공사관도 같았다. 9월 24일(음력 8월 25일) 무로다 요시후미(室田義文) 총영사가 무츠 무네미츠(陸奥宗光) 외무대신에게 보낸 전문에서 “경부 간의 군용전선은 개통 이래 한 달 반도 되지 않았으나, 불통이 되는 일이 빈번하여, 실로 ... 무려 9차례에 이른다.”¹¹⁾고 하였다.

일본군이 조선인 살해 명령을 이 문제로 처음 내리게 된다. 참모총장 타루히토(熾仁)가 직접 “전선을 파괴하고, 혹은 공사를 저해하며 혹은 그 외의 방법을 통해 군용전선 가설의 목적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배제”¹²⁾하라고 훈령을 내린 것이다. 병참부 주둔병도 군용전선의 보호를 추가 임무로 정하였다.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는 요지에 설치된 병참부 주둔병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동학농민군을 살해하기 시작했다. 당시 명령 계통상 최고책임자는 대본영의 상석참모 겸 병참총감 카와카미 소로쿠(川上操六, 1848~1899) 중장이었다. 카와카미 중장은 사츠마번 출신으로 오오야마(大山巖) 육군 경을 수행해서 유럽의 근대 군사제도를 시찰한 인물로서 청일전쟁의 개전에 크게 관여하였다.¹³⁾

일본 대본영에서는 동학농민군 진압을 목적으로 후비보병 제19대대를 증파하였다. 대대장 미나미 코시로(南小四郎)은 조선 관군의 지휘권도 장악하게 된다. 조선정부도 동학농민군을 진압을 위해 임시 최고지휘부인 양호도순무영을 설치해서 경군을 남하시켰다. 그러나 일본군이 순회하는 지역에서는 경군뿐 아니라 지방군과 민보군도 일본군 장교가 지휘를 하였다.

동학농민군의 진압은 후비보병 제19대대의 3개중대뿐 아니라 여러 부대가 가담하였

11) 李升熙, 2005, 「청일·러일전쟁기 일본군의 군용전선선 강행가설 문제」 『日本歴史研究』 21집, 117~118쪽.

12) 위 논문, 118~119쪽. 이는 1894년 5월 24일(양력 6월 27일) 第1, 第2電線架設支隊司令官에게 내린 명령으로서 청과 전쟁에 대비하여 전선 가설과 보호를 위해 무력 사용을 거론한 것이다.

13) 그의 사위가 에히메현 출신으로 육군 중장까지 오른 오히라 츠토무(小原 伝, 1862~1928)이다.

다. 충주와 강원도로 파견된 후비보병 제18대대의 1개중대, 인천에 주둔했던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 황해도에 파견된 후비보병 제6연대의 제4중대와 제7중대의 일부병력, 부산수비대의 1개중대, 해군함정 츠크바함(筑波艦)에 탑승한 육전대 251명, 조강함(操江艦)의 승조원 82명이었다.¹⁴⁾ 이노우에(井上勝生) 교수는 2천명 규모의 병력이라고 추정하였다. 후비보병 1개중대는 1889년의 개정 규정에 따라 총원이 221명이고, 진압군의 주력을 이룬 제19대대는 663명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진압군의 규모가 일본군 2,700명과 조선 정부군 2,800명이라는 통계도 있다.¹⁵⁾

3. 동학농민군의 대규모 학살사건과 제노사이드

히로시마 대본영에서 진압군을 증파한 것은 전쟁 지원 차원에서 수행된 것이지만 조선 정부가 경군을 파견한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일본의 강요였다. 경복궁과 서울은 일본군에게 장악되어 일본공사의 강요를 정부가 막을 수가 없었다.

둘째는 동학의 가르침과 무장봉기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유교를 바탕으로 정치를 운영하고 사회질서를 지켜나갔던 조선왕조에서 주자학의 가르침과 다른 주장을 펴는 동학은 배척되었다. 더구나 관아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장활동을 하면 병란(兵亂)에 불과했다.

셋째는 지방관의 구원요청이었다. 전라도 대부분의 지역과 충청도의 일부 지역에서 동학농민군 조직은 여름 이후 관아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무리를 지어 불법행위를 하거나 무장을 하고 다녀도 막지 못하였다. 8월 말부터 읍내를 점거하는 일이 빈번하

14) 『朝鮮駐劄軍歷史』 18~19 ; 朴宗根, 『清日戰爭과 朝鮮』, 241쪽 ; 具良根, 1976, 『東學農民軍의 第二次蜂起と日本軍の部署』 『新韓學報』 18호, 東京: 新韓學術研究會 ; 慎鏞廈, 1993, 『東學과 甲午農民戰爭研究』, 일조각, 322쪽 ; 姜孝叔은 학위논문 『제2차 동학농민전쟁과 일청전쟁』, 27에는 이들을 합해서 2,708명으로 추산했으며, 井上勝生 교수는 「甲午農民戰爭(東學農民戰爭)と日本軍」에서 일본군 약 2,000명 조선정부군 2,800명으로 추산했다.

15) 歴史教育者協議會編, 2007, 「知っておきたい韓国・朝鮮」, 青木書店 刊

였다. 지방관 징계 차원으로는 수습할 수 없었다.

삼남 많은 지역에서 관치질서가 무너질 형편이었다. 지방관들의 보고와 구원 요청이 빗발치자 정부는 경군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관료들뿐 아니라 양반 유생들도 정학(正學)을 숭상하고 이단을 물리쳐야 한다는 주장은 변함없었다. 노론 집권층부터 부패한 정계를 비판하던 소론계 양명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정사(正邪)와 선악(善惡)문제로 보고 철저한 초멸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¹⁶⁾

일본은 동학당을 진압할 때 학살이 뒤따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후환을 막기 위해 조선정부가 일본군 파견을 요청하는 형식을 밟도록 하였다.¹⁷⁾ 가장 큰 반일세력의 제거에 관군을 내세우는 방법을 쓴 것이다.

조선 관군의 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후비보병 제19대대장 미나미 소좌는 먼저 충청도와 강원도의 동학농민군 세력을 제압하고, 경상도와 충청도를 3방향에서 남하해서 전라도 남단으로 충청도와 전라도의 동학농민군을 포위하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군 각 중대에는 경군 각 부대를 나누어서 동반시켰다. 몰수했던 경군의 무기는 일부를 돌려주었다. 일본군 장교가 훈련시킨 교도중대는 일본군 장교를 파견해서 실제 지휘하게 하였다.

또한 일본군은 각 중대에 고위관료를 따르게 해서 각 지역의 지방관을 독려하거나 동학농민군을 귀순시키는 일을 맡도록 하였다.¹⁸⁾ 이와 함께 군수물자와 군량 조달 그리고 인부 모집과 일본군 숙소 마련 등을 책임지는 관리들도 수행시켰다.¹⁹⁾

진압군에게 처음부터 강조한 방침은 “적절히 완급을 가려 가혹한 수단을 취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무장한 군대에게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명령하는 것은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전국 도처에서 처절한 학살극이 벌어졌다.

일본군이 전면에 나서 벌인 학살극은 외형면에서 전투 형식을 띄고 있었지만 근대

16) 신영우, 2009, 「1894년 왕조정부의 동학농민군 인식과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51집.

17)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東學黨의 再起와 日軍의 匪徒鎮壓에 따른 朝鮮政府의 협조 요청」, 132~134.

18) 충청도는 朴齊寬, 전라도는 李道宰, 경상도는 李重夏가 慰撫使로 일정 기간 동안 일본군과 동행하였다.

1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 「東學黨征討計劃과 鎮撫使 및 朝鮮軍 派遣要請」, 147~148.

사회에서 벌어지는 군대 간의 전투가 아니었다. 동학농민군은 전국 많은 지역에서 동학조직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압군이 접근하면서 지역별로 대규모 집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훈련과 무기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일본군과 동학농민군은 훈련면에서 격차가 있었다. 후비보병 제19대대 병사들을 보면 군대 경험이 많은 정예병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일본의 징병제도는 만 20세에 상비병으로 3년간 복무하고 예비역으로 4년을 보낸 후에 농공상 등 생업에 종사하다가 다시 소집되어 5년 간 후비병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었다. 후비보병 제19대대 병사들은 적어도 7년 전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각종 병과에서 단련된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에히메현(愛媛縣)을 비롯한 카가와(香川)・토쿠시마(徳島)・코치(高知) 등 시코쿠의 4개 현 출신이었다. 일본군이 대규모 증강을 꾀할 때인 1884년 시코쿠의 마쓰야마(松山)에서 보병 제22연대 1대대가 히로시마 진대(鎭台) 소속부대로 편성되었다. 1888년 진대를 개편해서 사단으로 만들 때 22연대는 5사단에 소속되었다.²⁰⁾ 후비보병 제19대대 병사들은 이 대 5사단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고 근무한 뒤 예비역까지 마친 역전의 병사들로 추정된다. 상비병으로 구성된 정규 5사단이 조선에 파병된 후 다시 증파 필요가 생기자 제22연대 출신이었던 후비보병 제19대대를 다시 소집해서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군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든지 농민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근대식 군대훈련은 물론 구식군대의 경험도 거의 없었다. 동학농민군의 무장은 빈약하였다. 처음에는 농기구와 죽창을 들고 나온 사람이 많았고, 관아의 무기고에서 탈취한 칼과 창 그리고 활로 무장하였으며 일부는 화승총으로 무장하였다. 경군이 보유한 신식소총과 대포를 빼앗기도 했으나 쓸 줄을 몰랐고, 사용법을 안다고 해도 탄알과 포탄이 떨어지면 보충할 길이 없었다.

20) 보병 제22연대는 5사단과 11사단에 소속되어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에 참여하였고, 1932년 상해사변이 벌어졌을 때는 상해에 파견된다. 그리고 제2차대전 말기 오키나와 방어에 동원되었다가 미군의 공격으로 玉碎하였다.

그러한 동학농민군이 후비보병 제19대대 병사들이나 해군 육전대 등과 대등하게 전투를 벌일 수는 없었다. 동학농민군은 그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 일본군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꺼렸다. 충청도 괴산에서 가흥병참부의 일본군이 패배한 전투를 조사했던 후비보병 제6연대 제6중대장 야마무라 타다마사(山村忠正) 대위가 동학농민군 포로를 잡아 취조한 내용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온다.²¹⁾

問 동학당은 일본군과 적대할 결심이 되어 있는가?

답 적대할 의사는 없다. 될 수 있는 대로 일본군이 없는 곳을 찾아서 지나간다.

問 그런데 때때로 일본군과 전투를 하지 않는가?

답 뜻밖에 조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통행로에 부득이 장애가 될 경우에는 전투를 한다. 그럴 때는 일본군 1명에 동학당 100명꼴의 豫算으로 싸운다.

일본세력을 축출하기 위해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 전투를 하지 않기 위해 피해 다녔다는 것이다. 일본군의 위력은 경북궁 기슭 점거와 성환·평양에서 청군을 패배시킨 소식으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일본군이 상대방이 된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은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군 전투보고서와 관군의 전과 보고를 통해 보면 그 참혹한 상황을 알게 된다.²²⁾ 전투는 전국 여러 지역에서 벌어졌다. 먼저 일본군이 개입한 주요 전투지역과 수색 및 학살지역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²³⁾

2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권,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 (14) [忠淸道 東學黨 討伐狀況 및 戰況報告寫本 送付] [別紙 1]

22) 이에 대한 주요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井上勝生, 2002, 「일본군에 의한 최초의 동아시아 민중학살—동학농민전쟁, 청산되지 않은 가해 책임—」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책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편 ; 井上勝生, 2002, 「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전쟁)과 일본군」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적 책임』,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편 ; 裴尙燮, 2004, 「동학농민전쟁 당시 일본군의 개입과 그 영향」 『軍史』 53호 ; 박찬승, 2005, 「동학농민전쟁기 일본군·조선군의 동학도(東學徒) 학살」 『역사와 현실』 54 ; 姜孝叔, 2005, 『第2次東學農民戰爭과 日淸戰爭—防衛廳 防衛研究所圖書館所藏史料를 中心으로—』, 千葉大學 社會文化科學研究所 ; 신영우, 2009,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제노사이드와 한국근대』, 경인문화사.

23) 신영우, 위 논문 참조.

* 후비보병 제19대대 3로군

서로군(西路軍) : 충청도 승전곡, 홍주성, 공주 판치 능치 효포 응치, 노성, 논산, 은진

중로군(中路軍) : 충청도 문의 지명 증약 석성 양산, 전라도 금산 연산 용담 농산 진안

을곡 고산 대둔산 원평 태인

동로군(東路軍) : 강원도, 전라도 원평, 태인

* 후비보병 제19대대 지대 : 전라도 장흥 강진 해남 장흥 나주 보성 함평 무안

영암 광주 능주 담양 순창 운봉 장성 무장 낙안 구례 순천 홍덕 진도

* 후비보병 제19대대 군로실측대 호위병 : 충청도 청주 보은(종곡)

* 후비보병 제6연대 2대대

6중대 : 충청도 괴산 보은 청산 해미 서산

황해도 파견대 : 황해도 재령 평산 해주

* 김수 수비대, 황주 병참부 : 황해도 서흥 정방산 은파

* 츠쿠바함(筑波艦) 육전대 : 전라도 좌수영 보성 장흥

* 낙동병참부 주둔병 : 경상도 상주

* 해평병참부 주둔병 : 경상도 선산

* 가흥병참부 주둔병 : 충청도 단월 청풍 괴산, 경기도 곤지암

* 개성병참부 주둔병 : 황해도 해주

* 부산 수비대 : 경상도 곤양 진주

이 지역들은 공식 보고서에 기록된 곳들이다. 일본군이 전투와 수색을 주도해서 동학농민군을 학살한 지역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에 걸쳐 있었다. 일본군에 의해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희생된 곳은 충청도의 공주 우금치, 홍주, 해미, 서산, 청주, 괴산, 문의, 보은 등지를 비롯해 경상도 상주, 선산, 진주 등지였다.

특히 전라도 남단에서는 대규모의 학살이 자행되었다.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작전 계획을 보면 처음부터 이 지역으로 동학농민군을 몰아넣고 살육할 것을 꾀하고 있었다. 전라도 남단에서 전투 과정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장흥 등 일부 지역에

서 있었던 일이었다. 대부분 사방으로 흩어져서 피신한 사람들을 수색해서 처형하였다. 처형 방식도 참혹하였다. 병참부 주둔병이 학살한 수도 매우 많았다. 상주와 선산에서는 수백 명 단위로 희생자가 나왔다.

일본군은 전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 상황을 보면 전투로 볼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무기가 차이가 나는 동학농민군을 일방적으로 죽인 결과를 기록하였다. 반면 일본군은 거의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동학농민군 희생자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그 수는 정확하게 통계내기가 불가능하다. 첫째, 일본군이나 관군의 보고가 정확하지 않은 때문이다. 진압 초기에는 비교적 적은 수까지 보고하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정확하지가 않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학살을 거듭 자행한 후에는 ‘200명’ ‘300명’과 같은 단위로 보고하고 있다.

둘째, 일본군이 희생자의 수를 축소시키려고 한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희생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니까 뒷감당이 우려되었는지 수를 줄이려고 시도하였다. 같은 지역에서 같이 있었던 관군의 기록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축소 시도는 지대 파견병이나 각 지대의 보고를 받았던 대대장 미나미 소좌나 마찬가지로였다.

셋째, 일본군의 보고 계통이 달라서 기록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조선에 있던 일본군의 소속은 달라서 보고도 여러 계통으로 하고 있었다. 서울과 원산에 주둔한 일본군은 제5사단이나 제1군사령부에 직속되어 있었다. 원산에 파견되어 강원도 지역을 순회하던 주둔병은 히로시마 대본영에 소속되어 있었다. 후비보병 제19대대는 히로시마 대본영의 병참총감 직할로서 부산과 인천에 있던 병참감에게 명령을 받았다. 일본공사관은 병참계통의 보고를 받았는데 그 기록을 남겨놓았다. 하지만 다른 기록은 알려져 있지 않다.

넷째, 일본군과 같이 다니던 관군의 보고 기록에 동학농민군 희생자의 수를 충실히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기록조차 망실된 경우가 많아서 알지 못하고 있다.

일본군과 벌인 전투 양상을 보면 전투다운 전투가 아니었다.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모여 있는 집결지나 산위에 사정거리가 긴 신식총을 쏘아서 몇 사람이 쓰러지면 대부

분 흩어져서 피신하거나 숨어있었는데 이들을 찾아서 살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이 너무 혹독했다고 비난을 받았던 것이다.²⁴⁾

그러면 후비보병 제19대대 병사 중 전사한 사람은 몇이나 되었을까? 단 한 사람뿐이었다. 전라도 연산에서 3중대 소속 상등병 스기노(衫野寅吉)가 죽은 것이 유일했다. 오히려 병사한 병사가 2명나 나왔다. 치중병 미야타케(宮武傳吉)가 3월 18일 용산 도착 후 병사하고, 2중대 일등병 후쿠시마(福島喜三郎)가 장성현에서 병사한 것이다.

후비보병 제19대대에게 죽은 동학농민군은 보고한 수만 해도 수천 명이었는데 그것도 축소 보고한 수였다. 그 위에 여러 지역에서 수백 명 단위로 희생된 것이 빠져 있다. 강원도 일대를 순회한 보고는 들어있지 않고, 우금치 전투에서 대규모로 희생된 수도 제외한 수가 그러하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를 죽인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는 단 한 사람만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학농민군과 일본군과의 전투는 어느 면으로 보아도 전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결과가 말해주듯이 일방적인 학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부산과 서울로 이어지는 병참부의 주둔병이 동학농민군의 손에 죽임을 당한 수는 9명이었다.²⁵⁾ 그것도 전투 중에 죽은 경우는 가흥병참부에 소속된 병사가 괴산전투에서 죽은 것뿐이었다. 다른 경우는 대부분 정탐을 하기 위해 동학농민군 근거지를 돌아다니다가 발각되어 죽은 것이다.

여기에 각지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상당수가 처형되었는데 그 수도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전라도 서남지역에서 동학농민군을 붙잡아서 대규모로 처형한 것은 말 그대로 대학살이었다. 무장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체포해서 처형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동학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서 희생당한 사람들도 많았다. 심지어 갈을 가다가 동학 관련 소지물이 발각되어 처형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24) 『討匪大略』. 여기에서 金爽中은 보은 복실에서 많은 희생자가 난 것에 대해 비난여론이 일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25) 台封兵站司令部 - 騎兵大尉 竹內盛雅; 洛東兵站司令部 - 歩兵一等軍曹 山村能熊次, 上等兵 片山嘉一郎, 一等兵 久保岩吉, 通辯 上野捨次郎, 雇 倉庫守衛 濱田于雄; 可興兵站司令部 - 歩兵上等兵 酒向好五郎, 憲兵上等兵 南海爲三郎; 利川兵站司令部 歩兵一等軍曹 井上楠彌太

대대장 미나미 소좌는 동학농민군과 일반 농민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농민들이 일본의 침략에 위기감을 가지고 봉기한 것이기 때문에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무장을 했지만 전근대 무기를 가진 동학농민군은 신식무기에 맞설 수 없었다. 이들은 군대에 들어가서 병사로서 훈련을 받지도 못하였다. 정부나 지방관아의 지원은 더욱이 받지 못했고 오히려 탄압 대상이었다. 동학에 입도했거나 동학농민군에 들어가서 활동했던 사람은 모두 민간인이었던 것이다.

박은식(朴殷植)은 『한국통사』에서 동학농민군 30여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추정하였다. 표영삼은 5만에서 6만까지 추산하고 있고, 이이화는 10만 명 선까지 희생자를 보고 있다. 이것은 1894년에서 1895년 초까지 동학농민군이 봉기한 후 희생된 모든 수를 추정한 것이다.

한국근대사 연구에서 대규모로 동학농민군이 학살된 사건은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각에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전라도 서남단에서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던 시기에 청나라 여순(旅順)을 점령한 일본군이 주민 ‘2만 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 사건은 중국에서 여순대도살(旅順大屠殺)로 부르고 있고, 영어로는 the Port Arthur Massacre²⁶⁾, 또는 the Port Arthur Atrocities라고 부르는 사건이다.

여순을 점령한 일본군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여순 시내와 근교에서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였다. 오오야마(大山巖)이 지휘하는 제2군 에하의 혼성제12여단에 규슈(九州) 출신 부대인 14연대와 24연대가 소속되어 있는데 이들이 청군 포로와 부상병 그리고 주민들을 목을 베거나 총검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던 것이다.

이 대학살사건은 외국인 목격자와 일본군에 종군했던 기자들이 구미의 여러 신문에 보도해서 널리 알려졌다. 미국 신문인 「타임즈」 「헤럴드」 「뉴욕월드」에 실린 기사는 큰 반향을 불러왔다. 「뉴욕월드」의 크릴맨은 생생하게 현지 사정을 전하는 기사를 썼다. “일본군은 11월 21일 여순에 진입하여 냉혹하게 전 주민을 대학살하였다. 무방비 비무장한 주민들은 자기 집에서 살해되었고, 그의 신체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잘게 절단되었다.”고 보도한 것이다. 톨스토이와 로마교황 그리고 인디

26) <http://sinojapanesewar.com/PortArthur.htm> 참조.

언 주장 시팅 불을 단독인터뷰해서 유명했던 크릴맨의 기사는 파장이 크게 일으켰다. 국제사회에서 일본군의 잔인한 행위는 규탄되었고, 외교문제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에 비하면 동학농민군에 대한 무참한 학살은 당시 외국언론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고, 국제 문제로 거론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잊혀진 사건이 되었다.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 교수는 『한국병합, 100년을 묻는다』에 실린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였다. “농민군을 서남단으로 추격하여 포로를 포함해서 모두 살육하여 섬멸했던 것이다. 희생자는 청일전쟁에서 일본병과 청국병 사상자보다 훨씬 많았다. 일청전쟁에 이어서 「제2전쟁」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²⁷⁾라는 것이다. 동아시아 역사의 판도를 바꾼 대전쟁이 청일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교전 당사국인 일본과 청의 전사자를 합한 것보다 동학농민군의 희생자 수가 더 많았다는 지적이다.

제노사이드라는 시각에서 동학농민군의 희생을 보면 동아시아 근대사의 다른 면이 보이게 된다. 중국 중심의 전근대 세계에서 일본이 패권을 장악하는 전환이 조선에서 민간인을 대규모로 학살한 사건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나치스의 전쟁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구상된 제노사이드 개념은 “인종, 종교, 사회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나 그 집단을 절멸하려는 목적에서 구성원들의 생명, 신체상의 안전, 자유, 존엄성, 경제적 생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²⁸⁾라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19세기 말인 1894년에서 1895년 초에 이르는 시기에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동학에는 신분제사회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실천을 했던 세력이 모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결속해서 부패한 왕조정부와 관리들이 백성을 수탈하지 않도록 정치를 바로잡도록 하자고 일차봉기에서 동학농민군이 호소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차봉기였다.

20세기에 제노사이드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원인의 하나가 대량 살상무기의 발

27) 『「韓国併合」100年を問う』 『東學農民軍包圍殲滅作戰と日本政府・大本營』, 岩波書店.

28) 라파엘 램킨(Raphael Lemkin, 1900-1959)의 국제법 시안. 최호근 위 논문 58에서 재인용.

명과 보급이라고 한다. 19세기 말도 전 단계에 비해 신식무기가 공급되고 강력한 군사훈련을 받은 군대가 식민지 확보와 지배를 위해 동원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의 학살은 그런 와중에서 나타난 것이고 이는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으로 함께 다룰 수 있는 문제가 된다.

4. 맺는 말

동학농민군은 “왜적을 소멸하고 개화를 제어하며 조정을 청평(淸平)하고 사직을 안보”²⁹⁾하자면서 관군과 관리들에게 힘을 합하자고 호소하였다. 하지만 이 호소는 거부되었다. 일본군을 도와서 동학농민군을 마지막까지 초멸했던 세력이 지방관아와 민보군이였다. 즉 조선의 관료들과 양반지배층은 동학농민군을 용납하지 않았다.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섬멸의 대상으로 본 것이다.

외세의 개입 없이 동학농민군과 대결할 경우 정부는 승산이 없었다. 친일개화와 정부에서는 일본의 강요가 있었지만 병란을 평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다. 삼남 많은 지역에서 지방관아와 양반세력들도 그 지역 동학농민군에게 압도당했다. 관아는 점거되어 무기를 털렸고, 양반지주들은 돈과 곡식을 강제로 헌납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승야입경(乘夜入京)ㅎ·야 군부를 핍박(逼迫)ㅎ·고 국권(國權)을 천자(擅恣)”해서 일어나는 위기는 다음 문제가 되었다. 이들에게는 동학농민군 진압이 눈앞의 시급한 문제가 된 것이다.

동학농민군의 대규모 학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 오히려 향촌사회 내부를 잘 아는 군교들과 민보군이 일본군을 도와서 패산한 동학농민군의 뒤를 쫓아 체포하는데 앞장을 섰다. 동학농민군이 읍내를 점거할 때 보복을 한 곳에서는 더욱 심한 학살이 이어졌다.

청일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동학농민군을 국제적으로 지원하는 세력

29) 『宣諭榜文竝東徒上書所志騰書』 「告示 京軍與營兵以教示民」

이 없었다. 청군도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 국내로 진주했기 때문에 일본군과 대적하는데 동학농민군을 동원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국내외 지원세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비참했던 학살사건이 일어났다.

지금까지 동학농민군의 대학살에 관해서는 사회 어느 곳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후손들까지 공공연히 말할 사정이 아니었다. 한 세기에 걸쳐 조선왕조의 지배층과 일제 지배자들에게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3세대 동안 숨죽이며 살아야 했다. 지금까지 대학살 관련 연구나 집단매장지 발굴 사업 등에서 진척이 없었던 것은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제노사이드 희생자는 1억 7천만이 넘는다고 한다.³⁰⁾ 국민국가의 애국심과 민족주의가 극단의 선택을 하도록 열풍을 조성하고,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대량 살상이 가능한 근대무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학살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아르메니아인과 유대인, 집시 등이 학살되거나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경계 획정 때 여러 종족이 함께 들어가서 내전 형태로 학살이 자행된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사건들과 비교하면 동학농민군의 학살사건은 성격 규정이 어려울 만큼 여러 국내외 사정이 복합된 상태에서 벌어졌다. 조선왕조를 지탱해온 기본사상인 주자학과 사회질서를 보는 가치관이 다른 동학의 존재, 피지배층이 대거 가세해서 양반지배층에게 우려를 갖게 한 변혁운동, 민씨 척족세력의 부패한 정치와 친일개화파의 외세에 의존한 개혁을 반대하는 개혁운동, 일본의 경복궁 점거와 내정간섭에 대해 반대하는 자주권 수호운동 등이 배경으로 있는 것이다. 일본군이 전선의 후방을 교란하는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것을 결정하고 후비보병 제19대대를 증파했을 때, 친일개화파 정부와 지방 관아 및 양반지배층은 일본군을 지원하여 동학농민군을 제거하는데 참여하였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진압군의 주력이 일본군이었고, 무기와 탄약을 통제하던 경군과 순회지역의 지방군을 지휘하는 지휘권을 가졌기 때문에

30) 최호근, 앞 논문.

일본군에 의한 조선 민간인 학살이 가장 중요한 성격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최대의 반일세력이 소멸된 후 일제에 의한 국권 탈취와 식민지 지배가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민족말살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그런 참담한 경험을 했으면서도 아직까지 동학농민군을 대규모로 학살한 사건에 관해 기초적인 사실조차 국민 사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의 출진과 '카이난海南 신문'의 보도

오노우에 마모루(尾上 守) | 일본 코리아 협회·에히메(愛媛) 회원



[사진]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출신지 시코쿠(四国)

1. 자기 소개 및 줄문

「카이난 신문으로 보는 동학농민전쟁 1, 2」 소개

일본 에히메현(愛媛県) 마츠야마(松山)시에서 온 오노우에 마모루(尾上 守)입니다. 실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일본 코리아 협회·에히메가 금년 3월에 『식민지 조선과 에히메 사람들』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이 책에 이번 연구 집회 주제로 수고해 주신 신영우 선생의 논문 「1894년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중로군과 동학 농민군의 대응」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게재하게 된 이유는 동학농민군, 혹은 조선 농민들을 철저히 탄압한 부대인 후비보병 독립 제19대대(이하 '독립을 생략함)의 병사들은, 사실 에히메(愛媛)·카가와(香川)·토쿠시마(徳島)·코치

(高知), 즉 시코쿠 4개 현 출신의 병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 에히메현의 사람들을 포함한 일본인들 중에 이 후비보병 제19대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영우 선생님의 논문을 저희들의 책에 게재하게 됨에 즈음하여 이 부대의 성격과 출진까지의 경과, 그리고 귀국 후의 동향을, 에히메현의 당시 지방신문 「카이난 신문」의 기사와 함께 제가 정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 「카이난 신문」은 1877년(메이지(明治) 10년) 4월~1941년(쇼와(昭和) 16년) 11월까지 발행된 에히메현의 상업 신문으로, 이것이 마이크로 필름판(35mm, 221개)으로 현립 도서관 등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필름판 「카이난 신문」에서 동학농민군 및 후비보병 제19대대 관련 기사를 찾아 정리한 것이 『식민지 조선과 에히메 사람들』에 게재된 저의 「카이난 신문으로 보는 동학 농민 전쟁 1, 2」라는 글입니다. 또한 이 「카이난 신문」은 제2차대전 말기에 현대의 다른 신문과 합병되어서 「에히메신문」으로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³¹⁾

31) 신문의 명칭인 '카이난(海南)'은 '바다의 남쪽'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바다'란 실은 태평양이나 동해가 아니라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를 말합니다. 세토나이카이는 혼슈(本州) 서단의 추고쿠(中国) 지방과 시코쿠 사이에 있는 '내해'이며, 에히메현은 이 내해의 남쪽에 있으므로 에히메를 '바다의 남쪽' 즉 '카이난'이라고 불렀겠지요.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 여러 차례 전쟁을 거듭해왔는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미국과의 결전을 결의하고 하와이 섬에 있던 미군의 태평양함대를 기습 공격했던 것이 1941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실은, 이 하와이 기습이라는 대사건의 일주일 정도 전인 12월 1일에, 정보 관리와 경비 절감을 위해 군부와 내무성이 내세운 '일현 일신문 체제(一県一紙体制)' 방침에 따라, 「카이난 신문」 등 에히메현의 3개 신문이 통합되어 「에히메 합동 신문」으로 간행되게 되었고, 다시 3년 후인 1944년에는 명칭을 「에히메 신문」으로 바꿉니다. 일본은 이 다음 해인 1945년에 패전했지만 「에히메 신문」이라는 신문은 그대로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이난 신문」에 이런 역사적 경과가 있었는데, 사실상, 현재의 에히메현 사람들 중에 「에히메 신문」의 전신이 「카이난 신문」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보고 1.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조선 출병까지

(1) 후비보병 제19대대 파병까지의 정세

한편, 이 「카이난 신문」에 동학농민전쟁 관련 기사가 처음으로 실린 것은 1894년 5월 19일이었습니다. ‘고부 민란에 대한 토벌군이 출격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그것으로, 5월 8일에 봉기한 고부의 동학농민군을 선무사가 설득하여 해산시키려 했으나 농민군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관군 800명을 해로로 현지에서 파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의 「카이난 신문」에는 ‘충청도의 동학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게재되어 있는데, ‘전라도 고부의 민란과 동시에 충청도에서도 동학의 일파가 봉기했다’고 썼습니다.

「카이난 신문」의 1894년 4월, 5월의 국제 기사라면 3월 말에 상하이에서 암살된 한국 정치가 김옥균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5월 중순부터 동학농민군 관련 기사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5월 31일의 전주성 점령을 접하자 6월 한 달 간의 동학 농민군 관련 기사는 223개로 늘었습니다. 이 시기가 되자 일본의 벽촌인 에히메현에서도 조선의 정보가 홍수처럼 넘쳐났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많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6월 초순, 조선 정부는 관군만으로는 동학농민군의 진군을 제압할 수 없음을 깨닫고 종주국인 청국에 진압군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 기회를 일본 정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 해 4월에 체결된 텐진 조약의 규정을 근거로 즉각 군대를 조선에 보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일본과 청국의 개입을 피하기 위해 6월 11일 전주성에서 철수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무츠 무네미츠(陸奥 宗光) 외무대신과 대본영 참모차장 카와카미 소로쿠(川上 操六)가, 6월 12일부터 열린 일본과 청국의 공동 철수 교섭도 무시하고 다음 날인 6월 13일에 에히메현의 마즈야마(松山) 연대(보병 제22연대) 등에 동원 명령을 내립니다. 이대로 철수하면 일본군은 전과도 없이 물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시기, 에히메 현민 일부는 ‘에히메 의용단’을 결성하고, 조선에 의용군을 파견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접한 「카이난 신문」은 ‘현재 채찍을 휘둘러 “돈비칸(豚尾漢(청국인의 변발을 ‘돼지 꼬리’라고 부른 것입니다))”의 머리를 치려는 국민이 많다. 애국심 깊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행동이다’라고 이를 칭송했습니다.

그 직후 일본군이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7월 23일의 조선 왕궁 점령입니다. 일본은 보병 제21연대 제2대대 등을 출동시켜 조선 왕궁을 점령, 민씨 정권을 배제하고 국왕에게서 집정권을 빼앗아 대원군에게 정치를 맡게 합니다. 같은 7월 23일, 일본은 청국과의 대결에 대비하여 해군을 조선으로 향하게 하고, 다음 날 7월 24일에는 풍도(豊島)에서 청국 해군과 조우, 교전하였습니다.

여기서 청일전쟁이 시작되는 것인데, 저의 이번 보고는 청일전쟁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이야기를 일본군이 조선 영토 내에 조선 정부의 허가 없이 설치한 ‘병참선’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앞서 기술한 풍도에서의 청일 교전 십 수일 전인 7월 11일, 「카이난 신문」이 ‘군용 전신 가설’이라는 제목으로 군용 전신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군용 전신은 목하 일본군이 방어하면서 가설하고 있는 중이다. 인천·부산 간은 하루 약 16km씩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 군용 전신의 가설은 일본 본국의 민중에게는 극히 당연한 전신 공사처럼 전달되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 정부의 허가 없이 무법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전신 가설은 이 시기까지는 ‘인천·부산 간’이었지만, 머지않아 부산에서 구미, 대구, 낙동, 문경, 이천, 서울을 거쳐 평양 부근의 어은동에서 청국의 봉황대까지 연결하는 장대한 군용 전신선이 되어 일본군의 가장 중요한 통신선이 됩니다.

(2) 후비 보병 제19대대와 시모노세키(下関) 배속



[사진2] 마츠야마 평야 동쪽의 이시즈치 산(石鎚山, 1982m, 일본 서부 최고봉)

한편, 풍도에서의 청일 교전으로부터 약 2주일 후인 1894년 8월 초순, 시코쿠(에히메카가와토쿠시마코치)의 후비 병사들로 편성된 후비보병 제19대대(720명)과 후비보병 제10연대(1889명)이 속속 마츠야마 항을 떠나 세토나이카이 내해의 대안에 있는 시모노세키 항에 상륙했습니다. 후비보병 제19대대는 8월 19일에 시모노세키 수비대로 배속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들 후비보병들의 임무는 일본 본토의 혼슈 서단에서 청국 해군의 일본 공격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의 징병 제도는, 육군의 경우 현역병이 20세에서 22세까지의 3년간, 예비병이 23세에서 26세까지의 4년 간, 후비병이 27세에서 31세까지의 5년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후비 보병 제19대대 병사들은, 27세의 경우 1868년(메이지 1년)에 태어났고, 31세의 병사는 1865년(케이오(慶応) 1년)에 태어난 것

이 됩니다. 즉, 그들은 거의 메이지 시대 초기에 태어나 청소년기(1882년 15세~19세)에 군인 칙령이 공포되었고, 청년기(1890년 23세~27세)에 교육 칙어가 반포되었습니다. 또한 징병 제도만을 보아도, 유년기(1873년 6세~10세)에 징병령이 시행되었고, 소년기(1883년 16세~20세)에 징병령이 개정되어 병역 연한이 연장되었으며, 청년기(1889년 22세~26세)에는 호주도 징병되어 거의 국민 개병제가 되는 식의, 일본의 전쟁 준비가 착착 진행되던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후비 병사의 연령이었던 27세에서 31세는 그 대부분이 유부남이자, 한창 아이를 양육하고 일가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던 때이므로, 곧장 전장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해도, 집을 비우고 군대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부담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들 후비 병사들이 소집된 직후, 8월 9일자 「카이난 신문」은 ‘자식을 죽이고 종군하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짙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히메현 남부에 처와 사별하고 아직 어린 사내아이를 키우면서 소작 일 등을 하여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던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에게 후비 병사 소집 명령이 도착했다. 출발 날짜가 가까워졌지만 자식을 맡길 친척도 없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어느 날, 마을의 총 대표가 찾아와서 “자네는 이번에 소집 명령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언제 출발할 셈인가”하고 물었다. 남자가 “빨리 출발하고 싶지만 자식을 키워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던 참입니다”하고 사정을 설명하니, 총 대표는 “종군은 공적인 일이지만, 자식 양육은 사적인 일이다.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천황의 은혜를 아는 자는, 금일의 국난을 맞아 개인의 사정을 버리고 일개 병사로서 천황에게 봉사해야 하네” 운운, 설득하려 한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는 급히 집안의 방으로 물러갔다. 오래지 않아 으악-하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자식의 시신을 안고 눈물을 닦으면서 총 대표에게 “지금쯤 마음도 진정되었습니다. 천황의 큰 은혜를 생각하

면 제 자식을 돌아볼 틈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시신을 뒤편 밭에 묻고서 놀란 총 대표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는 천천히 마츠야마 쪽으로 출발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어리석은 촌사람이 극단적으로만 내닫는 버릇은, 단순히 보면 실로 가여운 면이 있다’고 했는데, 병사들, 특히 가정을 가진 많은 후비 병사들의 출진에는 이와 비슷한 비극이 많지 않았을까요.

같은 날의 「카이난 신문」에는 예비역으로 소집된 병사를 다룬 ‘자식을 버리고 중군하다’라는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다섯 명의 자식을 둔, 일용직 노동자인 친구에게 자기 아이를 맡기고 출정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버지”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1894년 9월 초순, 동학 농민군이 삼례에서 다시 봉기합니다. 9월 4일의 「카이난 신문」은 ‘동학당의 재봉기(일본을 적대하다)’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동학당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정을 표하는 자도 있고, 또한 실제로 동정 할만한 사정도 있었지만, 작금의 동학당 중의 완고한 자들 가운데에는 일본을 적대시하여 일어난 자들이 있다’, ‘조선의 관리된 자로 일본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인부를 모으거나 하는 자는, 모두 참살해야 한다는 자도 있다는 것이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동학당의 동태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3)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조선 출진

이 무렵부터 「카이난 신문」의 보도가 분명하게 변합니다.

첫째, 일본과 전장을 연결하는 군용 통신선에 대한 조선인의 방해가 심화되는 점에 대한 경계 보도가 늘어났습니다.

둘째, 군용 통신선 방해의 주모자로 보이는 동학당을 적대시하는 보도가 늘어나더니, 이들을 ‘일종의 도적’ 등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10월이 되자 ‘현재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동학당이다’(11일자)라고 썼고, 결

국에는 “동학당 진압과 우리 부대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에 있는 일본 병사는 조선의 동학당을 진압함에 있어 극단적인 강경책을 써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16일자)고 썼습니다.



[사진 3] 동학당의 전투 양상을 보도하는 10월 12일자 「카이난 신문」

그리하여 마침내 10월 22일, 조선 남부 병참감이 히로시마(広島)의 대본영에 ‘수비병 2중대’의 파견을 요청합니다. 대본영은 다음 날인 10월 23일, 즉시 대응 부대 파견에 나섭니다. 이 대응 부대=동학당 토벌대로 편성된 것이, 에히메현 등 시코쿠의 병사들로 편성된 후비보병 제19대대를 비롯한 2대대, 2연대였습니다.

한편, 후비보병 제19대대 등이 조선 출정을 준비하던 그 무렵, 마침 일본군 낙동 병참부가 군조 1명, 사병 2명, 일본인 통역 1명, 한국인 통역 1명, 합계 5명의 정찰대를 청주 지방에 파견하여 동학당의 동향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 중

사병 한 명이 에히메현 우와지마(宇和島)시 요시다(吉田)정 출신 카타야마 카이치로(片山 嘉一郎) (29세)였습니다. 일행은 10월 23일 출발하여 정찰을 계속했던 것 같은데, 10월 27일에 청안현(淸安縣) 미안(米安) 미안에서 동학당 병사에 의해 전원 살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사정은 다시 11월 10일에 특명 전권공사 이노우에 카오루(井上 馨)가 김윤식 외무대신 앞으로 보낸 조사 요청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신지 요시다정(吉田町)의 절에 위의 사정이 간단하게 기록된 번듯한 비석이 남아있습니다.

실은 원광대학교의 박맹수 선생님을 이 묘에 안내해 드린 적이 있는데, 선생이 여기서 조선인을 살해하기 위해 파견된 병사의 묘지에 엎드려 참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날 박맹수 선생을 안내해 드렸던 4, 5명의 일본인도 여기서 선생이 그런 식으로 예를 올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진4] 일본군 낙동 병참부 병사의 묘

후에, 박맹수 선생에게 어떤 기분으로 참배하셨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박선생은 ‘동학농민 혁명군의 참가자들은 조선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 병사들은 그 가난한 조선인들을 살해했지만, 그 일본 병사들도 이 지역의 가장 가난한 농민들이었습니다. 좋아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겠지요. 가난한 까닭에 국가가 일으킨 전쟁에 휩쓸렸던 것이므로, 그들도 피해자로 봐야겠지요. 그런 기분으로 절을 했습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침략전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침략전쟁에 내몰린 병사

들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의 측면이 크다고 봐야겠지요.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비교적 쉬운 임무를 수행하던 후비보병 제19대대를 비롯한 후비 각 부대는, 이리하여 갑자기 동학 농민군 섬멸 작전의 제1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후비보병 제19대대는 1894년 11월 5일, 풍랑 속에 인천항에 도착했고, 용산으로 진군하여 주둔, 11일부터는 동학농민군의 움직임에 봉쇄하기 위해 마침내 한반도를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신영우 선생님의 글과 같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후비 보병 제19대대가 일본으로 귀국한 후로 이어집니다.)

3. 보고 2. 후비 보병 제19대대의 귀국

(1) 청일 강화조약 체결과 조선 왕비 암살 사건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는 1894년 11월 초순에 조선에 도착했고, 이후 4개월간의 전투를 거쳐 한반도 최남단에서 동학 농민군의 섬멸을 완료, 1895년 3월 1일 용산으로 귀환합니다.

메이지(明治) 천황은 3월 초순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한 일본군을 칭송하여 ‘동도(東徒) 섬멸에 대한 조서’를 내립니다. 일본은 신속하게 후비보병 제19대대 등, 조선에 있는 후비병을 국내의 상비병으로 교대시키고자 했지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리하여 후비 병사들은 이후로도 장기간에 걸쳐 ‘수비대’로서 조선에 남게 됩니다.

「카이난 신문」에는 3월 10일에 후비보병 제19대대 사령관 미나미 코시로(南小四郎) 소좌가 全奉準을 체포했던 당시의 問答集이 게재되었는데, 그 후 후비 보병 제19대대 관련 기사는 끊어져버립니다.

4월 11일 「카이난 신문」은 전봉준에 대해 ‘그의 죄상이 결정되는 것도 앞으

로 며칠 내일 것이다. 국사범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 또한 그 심정에 얼마간 동정할만한 사항도 있다는 점에서 아마 사형은 면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또한 이 신정부의 하나의 진보인 것이다'라고 호의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4월 23일, 전봉준 등 4명은 사형, 기타 10여명은 장형, 유배에 처해졌습니다. '신정부'의 진보는 없었던 것이겠지요.

4월 17일, 일본과 청국 사이에 '조선의 독립', '요동 반도, 대만, 평후 제도(澎湖諸島)의 할양', '배상금 지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일 강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7월 31일의 「카이난 신문」은 마츠야마시 호쥬(北条) 출신의 후비보병 제19대대 병사 쿠노 주조(河野十藏)의 장례식을 보도합니다. 그는 조선국의 인천 병참 병원에 각기병으로 입원했는데, 7월 11일 사망, 그 유해가 고향으로 운구되었습니다. 7월 31일에는 고향에서 장례가 치러졌는데, 참가자가 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8월 들어 마츠야마에서 출진했던 보병 제22연대의 귀환이 완료되었는데, 후비보병 제19대대는 아직 조선에 배치된 상태였습니다. 9월 12일, 대본영에서 미우라 고로(三浦 梧楼) 주한공사에게 전신을 보냅니다. '경성·부산·원산에 새로 일본 보병을 주둔시키기로 되었으므로 이때 조선국에 주둔 중인 후비보병대를 귀국시킬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우라 공사는 이에 동의했지만, 교대시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이리하여 10월 8일, 미우라 공사는 당시 경성 수비대였던 후비보병 제18대대 450명과 조선군 제2훈련대를 경복궁으로 보내, 일본군의 파견 의뢰에 반대하던 조선 왕비·민씨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미우라 공사는 이 만행을 결행하기 위해 후비 각 부대의 귀국을 연기시켰던 것입니다. 시코쿠 출신 후비보병 제19대대는 이때 경복궁의 지척인 용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명성황후 암살 사건과의 관계는 불분명합니다.

「카이난 신문」은 이 사건을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초기의 것을 보면 '지난 10월 8일의 경성 사변에 있어, 일본 민간인 여러 명이, 일본이 훈련을 담당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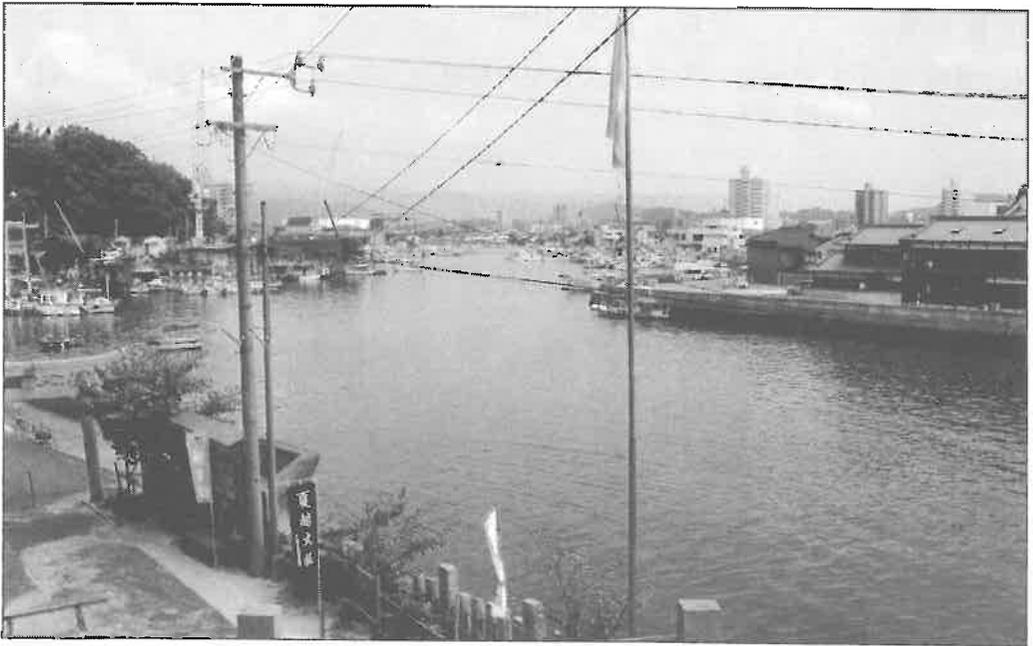
있던 훈련 부대와 함께 조선 왕궁에 돌입하여 끝내 비전하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한국인들이 떠들어대는데, 이것은 풍설에 지나지 않아 믿을 바가 못 되지만, 만약 재한 일본인으로, 이 흉행에 가담한 자가 있었다면, 이는 실로 일본의 선린 방침에 어긋나며, 조선 평화를 방해하는 무법 행위이므로, 일본 당국은 엄중히 조사하여 신속하게 이를 처벌토록 해야 한다'(10월 20일자)고 상당히 진지하게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린의 방침은 내버려집니다.

나아가, 이로부터 한 달 후, 당시 조선에 있던 에히메현 현민 무라마츠 타다오(村松 忠雄)의 대원군 암살 계획이 발각됩니다. 그는 고향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나는 왕비 암살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이제 하나의 방해물인 대원군의 머리위로 일본도의 날카로움을 시험하려 한다'고 한 것이 경보국(보안과에는 특별 고등 경찰이 있었다) 등에게 알려져 체포됩니다. 이것도 에히메현 출신 인사가 한 일이므로 여기에서 보고해 두겠습니다.

(2) 후비 보병 제19대대의 귀국



[사진5] 왼쪽의 언덕 맞은편에 후비보병 제 19대대가 상륙했던 미츠하마(三津浜)의 해변이 있었다.



[사진6] 위 사진의 언덕 뒤쪽이 이 미츠하마항. 좁아서 군함은 들어올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인 12월 3일부터 「카이난 신문」에 오랜만에 후비 보병 제19대대가 연이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 날인 12월 2일, 후비 보병 제19대대 제1진 96명의 귀국이 게재되었습니다. 후비보병 제19대대 제1진은 오후 7시 츠루가마루(敦賀丸)로 미츠하마항에 상륙했습니다. 항구에는 군부 대표, 현 지사, 현 의원, 각 회사 중역, 마츠야마 고등 소학교 4학년, 음악대 등이 마중 나왔고, 부대 상륙 중에는 불꽃을 쏘아 올렸습니다. 기차로 역 하나 거리인 숙소 근처의 정거장에 도착하자, 다시 학생이나 시민 등 수 백 명이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거리마다 낮에는 국기, 밤에는 등을 걸어 성대하게 환영했다고 합니다.

이 날의 「카이난 신문」에는 ‘후비보병들의 급역은 현역병보다 소액이어서, 그 가족의 생활을 돕기 위해 이번에는 후비 병사 1명 당 한 달 3엔의 비율로 임시 군사비에서 하사되게 되었다’ 등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1897년 무렵의 1엔은 2만엔 정도라는 설이 있음. ‘소학교 교원이나 순사의 초임이 한 달 8~9엔 정도. 능숙한 목수

는 월 20엔 정도'였다고 합니다.) 12월 10일에는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잔여 병력 311명이 승선한 타이완마루(台灣丸)가 도착하였고, 이로써 전원 귀국하였습니다.



[사진기] 후비보병 제29대대의 병사가 묵었던 마츠야마시 다이린 지(大林寺). 사진은 러일전쟁 시의 러시아인 포로들.

(3) 후비보병 제19대대 병사들의 귀향

후비보병 제19대대는 마츠야마에서 해산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간 대원들은 어디에서나 대대적인 의식으로 환영받았던 것 같습니다. 「카이난 신문」은 현내 각지의 환영 양상을 전했습니다. 마츠야마에서 남쪽으로 100킬로미터에 위치한 우와지마(宇和島)에도 조선 수비대나 타이완 정벌군으로 종군했던 병사 17명이 돌아왔습니다. 마을 유지 100여명이 부두에 나가 맞이했습니다. 병사들이 개선 하는 도로에는 집집마다 국기를 걸고, 처마에 등을 다는 등, 거리는 다채롭게 꾸며져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츠야마에서 동쪽으로 40킬로미

터 거리의 작은 촌락 이와네무라(石根村)에서도 유지들이 이 마을 출신 병사를 맞이하기 위해 마츠야마까지 가서 함께 돌아왔으며, 다음 날은 절에서 위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와 같은 행사가 열렸고, 각각의 방식으로 병사들을 위로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병사들이 귀국한 후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예가 있어, 여기서 소개하겠습니다. 마츠야마시에서 서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산간에 키타오모테(北表)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몇 킬로미터 산길을 오르면 계단식 협곡이 나옵니다.³²⁾



[사진8] 산 속 병사의 집. 사진의 왼쪽 위 구석입니다.

32) 마츠야마시에서 차로 30킬로미터 정도, 산으로 난 국도를 서쪽으로 올라가면 나카야마(中山)라는 마을이 있고, 산간 국도를 다시 서쪽으로 20킬로미터 정도 내려가면 우치코(内子)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치코의 마을 사무소를 지나는 길에서 산길 9킬로미터 정도를 올라가면 키타오모테(北表)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 줄기 산길로 들어가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 오르면 계곡이 계단식 논으로 바뀝니다. 산길은 다시 계속되지만 여기서부터 위쪽은 숲이어서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이 계단식 논의 계곡이 이즈미다니(泉谷)라는 곳으로, 오늘 날에도 계곡을 끼고 겨우 3채의 집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정도 전, 그 중 한 채에 3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마을에서 양자로 들어온 청년 시미즈 츠조(清水 忠藏)가 살았습니다. 그는 곧 후비보병 제19대대의 병사로 징집되었습니다. 조선에서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알 방법도 없지만,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마츠야마로 돌아왔습니다. 마츠야마에는 환영위원이 마중하러 와 주었고, 근처 마을 출신의 전우도 함께 마츠야마를 출발합니다. 당시에 이동은 모두 도보입니다. 도중에 산으로 들어가, 나카야마(中山)란 마을에서 일박했습니다. 나카야마에는 고향 키타오모테에서도 10명이 마중하러 와 있었고, 전우(戰友)의 마을에서도 수 십 명이 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치코(内子)에 도착하자, 출신지가 가까운 전우에게는 100명, 그리고 산중의 그의 출신지인 키타오모테에서도 50명이 와서 맞이했습니다. 그는 마중 나온 촌민들과 함께 9킬로미터의 산길을 걸어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밤에는 50여명의 사람들이 성대한 위로연을 열어 주었다고 합니다. 한편, 그 후 그는 다시 집이 3채밖에 없는 산 속 부락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험한 사면의 계단식 논에서 쌀농사를 짓고, 산으로 들어가 열심히 숲을 구웠습니다. 그가 숲을 끊고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잠들면, 숲가루나 먼지 때문에 이불에 사람 모양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에게 다시 출정하라는 명령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 그의 가게에서는, 그의 아들들은 군대에 징집되지 않고 넘어갔지만, 손자 한 명이 징집되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귀국하여 향리로 돌아가 안착한 후비보병 제19대대입니다만, 현재 이 부대의 병사였던 분들 중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이분의 묘뿐입니다. 그러나 사실 자손들은 조부가 어떤 부대에서 무엇을 위해 조선으로 갔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분 더, 인천 병참병원에서 사망한 마츠야마시 호쥬의 쿠노 주조(河野 十藏)씨의 경우, 손자 분과 만나기는 했지만, 역시 사정은 같았습니다. 쿠노씨의 가문에서는 가문 묘지 중 어느 묘석이 조부의 것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학농민군의 투쟁을 탄압하는 것으로 일본의 조선 지배의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후비보병 제19대대의 전쟁은, 이와 같이 그 대부분이 잊혀졌습니다.
『식민지 조선과 에히메 사람들』을 널리 알려, 한일 우호의 길에 기여하고 싶
습니다.

(2011년 8월 29일 집필)

後備歩兵独立第19大隊の出陣と 『海南新聞』報道

日本コリア協会 | 愛媛 会員 尾上 守

【写真1】後備歩兵第19大隊の出身地・四国

写真位置

1 自己紹介ならびに拙文『海南新聞にみる東学農民戦争1, 2』の紹介

日本の愛媛県松山市 (Ehime-ken Matsuyama-shi) からまいりました尾上守 (Onoue Mamoru) でございます。

実は、私の属しております日本コリア協会・愛媛が今年の三月に『植民地朝鮮と愛媛の人びと』という本を出版いたしました。この本に、今回の研究集会のお世話をなさっておられる申榮祐先生の論文『1894年日本軍後備歩兵第19大隊中路軍と東学農民軍の対応』を掲載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というのが、東学農民軍あるいは朝鮮の農民たちを徹底的に弾圧した部隊である後備歩兵独立第19大隊

(以下「独立」を省く) の兵士は、実は、愛媛 (Ehime) ・香川 (Kagawa) ・徳島 (Tokushima) ・高知 (Koochi) という四国四県の出身の兵士だったからです。

しかしながら、今日にいたっては、日本の人びとは、愛媛県の人びとも含めて、この後備歩兵第19大隊について知っている人はほとんどいません。そこで、申榮祐先生の論文を私たちの本に使わせてもらうに際しまして、この部隊の性格と出陣までの経過、そして帰国後の動向を、愛媛県の当時の地方新聞『海南新聞』 (Kainan Shinbun) の記事をもとに私がまとめてみることにしました。この『海南新聞』は1877年 (明治10年) 4月～1941年 (昭和16年) 11月まで発行された愛媛県内の商業新聞で、これがマイクロフィルム版 (35mm、221本) で県立図書館などに収められております。このマイクロフィルム版の『海南新聞』から東学農民軍及び後備歩兵第19大隊関連の記事を拾いだしましてまとめてみたのが『植民地朝鮮と愛媛の人びと』のなかに掲載された私の『海南新聞にみる東学農民戦争1, 2』という文章です。

2 海南新聞の紹介

さて、本日の報告はそのほとんどが、ただいまご紹介しました『海南新聞』という新聞に載せられた記事の紹介でありますので、まず最初にこの新聞の紹介をしておきましょう。

この新聞の名称の「海南」は「海の南」という意味ですが、この「海」というのは実は太平洋や日本海ではなく、瀬戸内海（seto-naikai）をさします。瀬戸内海は本州の西端である中国地方と四国の間にある「内海」なのですが、愛媛県はこの内海の南にありますので愛媛を「海の南」すなわち「海南」と呼んだのでしょう。

日本は日清戦争のあといくつもの戦争を重ねてきたのですが、その最後の段階でアメリカとの開戦を決意しハワイ島にいたアメリカ軍太平洋艦隊を奇襲攻撃したのが1941年12月8日でした。実は、このハワイ奇襲という大事件の一週間ほど前の12月1日に、情報管理と経費節減のために軍部と内務省が打ち出していた「一県一紙体制」の方針によって、『海南新聞』など愛媛県内の三つの新聞が統合され「愛媛合同新聞」として発刊されることになり、さらに三年後の1944年には紙名を「愛媛新聞」と改めます。日本はこの翌年の1945年に敗戦しましたが、「愛媛新聞」という新聞はそのまま残り今日まで続いております。

『海南新聞』にはこんな歴史的な経過があったのですが、実際のところ、今日の愛媛県人で「愛媛新聞」の前身が『海南新聞』という新聞であったことを知っている人はごくわずか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海南新聞』についてのご紹介は以上にしておきます。

3 報告1 後備歩兵第19大隊の朝鮮出兵まで

(1) 後備歩兵第19大隊派兵までの情勢

さて、この『海南新聞』に東学農民戦争関連の記事がはじめて載せられたのが

1894年5月19日でした。「古阜の民乱に対して征討軍が出撃した」と題する記事がそれで、5月8日決起した古阜の東学農民軍を宣撫使が説得して退散させようとしたが農民軍は退かない、そこで官軍800名を海路で現地へ派遣した」と報じています。この日の『海南新聞』には「忠清道の東学党」と題する記事も掲載されており、「全羅道古阜の争乱と同時に、忠清道においても東学一派が蜂起した」と報じています。

『海南新聞』の1894年4月、5月の国際記事といえば、3月末に上海で暗殺された韓国の政治家・金玉均に関わるものがほとんどでしたが、5月中旬から東学農民軍関連の記事が増え始め、5月31日の全州城占領をうけて6月一ヶ月間の東学農民軍関連記事は223本に上ったのでした。この時期になると、日本の片田舎である愛媛県においても、朝鮮情報は洪水のように流されたのでした。興味深い記事がたくさんありますが割愛します。

6月はじめ、朝鮮政府は官軍だけでは東学農民軍の進軍を制圧できないことを悟りまして宗主国の清国に鎮圧軍の派遣を要請したのですが、これを日本政府は見逃しませんでした。日本はこの年の4月に締結された天津条約の規定を根拠に、直ちに軍隊を朝鮮に送りました。

東学農民軍は、日本と清国の介入を避けようと、6月11日、全州城を撤退します。しかし、日本の陸奥宗光外務大臣と、大本営参謀次長川上操六が、6月12日から開かれた日本と清国の共同撤退交渉も無視して、翌日の6月13日に愛媛県の松山連隊（歩兵第22連隊）などに動員命令を下します。このまま撤退したのでは日本軍は戦果なしの引き上げになってしまうと考えたわけです。

この時期に、愛媛県民の一部には、この際「愛媛義勇団」を結成し、朝鮮に義勇軍を派遣しようと呼びかけたものもいたようです。これを取り上げた『海南新聞』は「現在鞭をふるって『豚尾漢』（清国人の辮髪を「豚のしっぽ」と呼んでいます）の頭を殴ろうとする国民が多い。愛国心に富む国民としては当然の行動である」とこれを賞賛しています。

その直後日本軍が大事件を引き起こします。7月23日の朝鮮王宮占領です。日本は歩兵第21連隊第2大隊などを出動させ朝鮮王宮を占領し、閔氏政権を排除して国王から執政権を奪い、大院君に政治を執らせませす。同じ7月23日、日本は清国との対決にそなえて、海軍を朝鮮へ向かわせ、翌7月24日には豊島で清国海軍と遭遇し交戦しました。

ここから日清戦争が始まるわけですが、私のこの報告は日清戦争全体をあつかうものではありませんので、話を日本軍が朝鮮領土内に朝鮮政府の許可無く設置した「兵站線」に移しておきたいと思います。

先ほど報告しました豊島での日清交戦の十数日まえの7月11日、『海南新聞』が「軍用電信の架設」と題して軍用電信について報道しています。「軍用電信は目下のところ日本軍が守りながら架設しているところである。仁川・釜山間は一日約16kmずつ架設していける見込みである」というものですが、この軍用電信架設は、日本本国の民衆にはごく当たり前の電信工事のように伝えられていたましたが、ご承知のように朝鮮政府の許可なく無法に進めたものです。この電信架設はこの時期では「仁川・釜山間」と書かれておりますが、まもなく釜山から亀尾、大邱、洛東、聞慶、忠州、利川、ソウルを経て平壤付近の魚隠洞から清国の鳳凰台までを結ぶ壮大な軍用電信線となり日本軍のもっとも重要な通信線となります。

(2) 後備歩兵第19大隊と下関配属

【写真2】松山平野東方の石鎚山 (Ishizuchi-san 1982m 日本西部最高峰)

写真位置

さて、豊島での日清交戦からほぼ2週間後の1894年8月初旬、四国（愛媛・香

川・徳島；高知）の後備兵によって編成された後備歩兵第19大隊（720名）と後備歩兵第10連隊（1889名）が次々と松山港を出て瀬戸内海の対岸にある下関（Shimonoseki）港に上陸しました。後備歩兵第19大隊は8月19日には下関守備隊に配属されます。この段階でのこれらの後備兵たちの任務は、日本本土の本州西端で清国海軍の日本攻撃に備えることであつたと思われます。

当時の日本の徴兵令では、陸軍の場合、現役兵役が20歳から22歳までの3年間、予備兵役が23歳から26歳までの4年間、後備兵役が27歳から31歳までの5年間でした。したがってこの時の後備歩兵第19大隊の兵士たちは、27歳の兵士は1868年（明治1年）生まれ、31歳の兵士は、1865年（慶応1年）生まれ、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すなわち、彼らは、ほぼ明治時代の初頭に生まれ、青少年期（1882年 15歳～19歳）に軍人勅諭を与えられ、青年期（1890年 23歳～27歳）に教育勅語の発布がありました。また、徴兵制度だけをみましても、幼年期（1873年 6歳～10歳）に徴兵令が施行され、少年期（1883年 16歳～20歳）に徴兵令が改正されて兵役年限が延長され、青年期（1889年 22歳～26歳）には戸主も徴兵され、ほぼ国民皆兵となる、というふうにより日本の戦争準備が着々と進められていった時代を生きなければなりません。後備兵の27歳から31歳といえば、そのほとんどは妻帯者であり子育ての最中であり、一家を支える役割を果たしていたわけで、直ちに戦場へは出ないかもしれないとはいえ、家をあけて軍隊に入る事自体大変な負担であつたと思われます。

これら後備兵たちの召集の直後、8月9日付けの『海南新聞』は「子を殺して従軍する」と題する長文の記事を掲載しています。短く紹介しましょう。

「愛媛県南部に、妻に死なれてまだ幼い男の子を育てながら小作などをしてなんとか日々を暮らしている男がいた。この男に後備兵召集の命令が届いた。出発の日が近づいてきたが、子供を預かってくれる親族もない。どうしたらよいものかと悩んでいるある日、村の総代がやってきて『あなたはこのたび召集を受けたと聞いているがいつ出発するつもりか』と口をだす。男が『早く出発したいのだ

けど子供を育ててくれる人がいないので困っているのです』と事情を説明すると、総代は『従軍はおおやけ (public) のことだが、子の養育はわたくし (private) のことだ。山より高く海よりも深い天皇の御恩を知っているものは、今日の国難に当たり一私人の事情を捨て、一兵士として天皇に奉仕しなければならない』などと説得しようとする。それをじっと聞いていた男は、急に奥の部屋に退いた。まもなくワーっと一声叫ぶ子供の声が聞こえる。男はすでに息の根の耐えた子供の死骸を抱いて涙を払いながら、総代に『今は気持ちも落ち着きました。天皇の御恩の大きさを考えるとわが子をかえりみるいとまはありません。さあ、ただいまより出発しましょう』と語り、死骸を裏の畠に埋めて、驚いている総代の顔をジロリと眺め、悠々として松山の方へ出発した。」

この記事を書いた記者は「おろかな田舎びとが、極端より極端に走るくせは、単純にして実に憐れむべきものがある」と述べていますが、兵士たち、ことに家庭をもつものの多い後備兵の出陣にはこれに似た悲劇が多かっ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同じ日の『海南新聞』には予備役で召集された兵士を取り上げた「子を捨てて従軍する」という記事も掲げられています。子どもが5人いる日雇いの友人に自分の子どもを預けて出征した男の話です。「西東もわからない子どもが『おとうさん』『おとうさん』と父親とたずねまわっている」と記事を結んでいます。

さて、1894年9月はじめ、東学農民軍が参礼で再蜂起します。9月4日の『海南新聞』は「東学党の再蜂起 (日本を敵とする)」という記事を掲げました。「東学党に関しては、我が国においても同情を表すものがあるし、また実際同情すべき事情もあったが、今や東学党の中の頑固なものたちのなかには日本を敵として立ち上がったものたちがいる。」「朝鮮の官吏で日本のために奔走して人夫を募ったりしている官吏は、一切これを惨殺すべしという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だ。」といった内容で東学党の動きを警戒しはじめます。

(3) 後備歩兵第19大隊の朝鮮出陣

このころから『海南新聞』の報道がはっきり変化して行きます。

第1に、日本と戦地をつなぐ軍用電信線への朝鮮人の妨害が募っていることへの警戒報道が増えています。

第2に、専用電信線妨害の主力と見られる東学党を敵視する報道が増え、これを「一種の盗賊」などと決めつけはじめます。

10月にはいと「現在において韓国に影響を与えているのは東学党である」(11日付け)と報じ、ついには『東学党鎮定と我が部隊の決心』と題して「朝鮮にいる日本兵は朝鮮の東学党を鎮定することに関し極端な強硬手段を取るべきだ、とする声がしきりである」(16日付け)などと報じます。

【写真3】東学党の戦いぶりを報ずる10月12日付け「海南新聞」

写真位置

そうして、いよいよ10月22日、朝鮮南部兵站監から広島の本営に「守備兵2中隊」の派遣要請が来ます。本営は翌10月23日、直ちに応援部隊の派遣にとりかかります。この応援部隊=東学党討伐隊に編成されたのが、愛媛県など四国の兵隊によって編成されていた後備歩兵第19大隊をはじめとする2大隊、2連隊でした。

さて、後備歩兵第19大隊などが朝鮮出征の準備を進めていたちょうどそのころ、日本軍洛東兵站部が軍曹1名、兵卒2名、日本人通訳1名、韓国人通訳1名、計5名の偵察隊を清州地方へ派遣して東学党の動向を探らせました。そのなかの兵卒の一人が実は愛媛県宇和島市吉田町出身の片山嘉一郎(29歳)でした。一行は10月23日に出発して偵察を続けていたようですが、10月27日に清安県米安で東学党

の兵士によって全員殺されました。この事件の事情はまた、11月10日に特命全権公使井上薫から金允植外務大臣宛に送られた捜査要請書にも記録されています。

現在出身地吉田町の寺に立派な墓石が残っており、上の事情が簡単にしたためられております。

【写真4】日本軍洛東兵站部兵卒の墓

写真位置

実は、円光大学の朴孟洙先生をこの墓にご案内したことがあったのですが、先生がここで、朝鮮人を殺すために派遣された兵士の墓に地に伏しての拝礼をなさったのにはおどろかされました。その日朴孟洙先生をご案内した4,5人の日本人もここで先生があのように拝礼されるとは想像もできなかったと思います。あとで、朴孟洙先生にどういった気持ちで拝礼されたのか聞いてみました。朴孟洙先生は「東学農民革命軍の参加者たちは朝鮮のもっとも貧しい人々でした。日本の兵士たちはその貧しい朝鮮人たちを殺したのですが、この日本の兵士たちもこの地域のもっとも貧しい農民たちでした。好き好んで人殺しをしたわけではないでしょう。貧乏であるがゆえに国家の企てた戦争に巻き込まれたのですから、かれらも被害者とするべきでしょう。そんな気持ちで拝みました。」と答えられたのでした。

侵略戦争を否定的にみることは大切なことですが、侵略戦争に行かされた兵士たちについては「被害者」としての側面が大きいと見るべきなのでしょう。

日本の下関で比較的のんきな任務についていた後備歩兵第19大隊をはじめとする後備諸部隊は、こうして突然東学農民軍殲滅作戦の第一線に立つことになったのでした。後備歩兵第19大隊は1894年11月5日に、嵐の中、仁川港に到着し、龍山に進んで駐屯、11日からは東学農民軍の動きを封じるためにいよいよ朝鮮半島

南下を開始しました。

(ここからあとは申榮祐先生のお話にあったとおりです。私の話は続いて後備歩兵第19大隊の日本帰国後に移ります。)

4 報告2 後備歩兵第19大隊の帰国

(1) 日清講和条約締結と朝鮮王妃暗殺事件

日本軍・後備歩兵第19大隊は1894年11月はじめに渡韓して以来4ヶ月の戦いを経て朝鮮半島最南端で東学農民軍殲滅を完了、1895年3月1日龍山に帰還します。明治天皇は3月はじめ東学農民革命を沈静化させた日本軍をたたえ「東徒掃滅についての詔勅」を下します。日本はさっそく、後備歩兵第19大隊など朝鮮にいる後備兵を、国内の常備兵と交換しようとはしますが、国際情勢の変化のなかでそれができ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こうして後備兵たちはこのあとも長期間にわたって「守備隊」として朝鮮に残る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

『海南新聞』には3月10日に後備歩兵第19大隊司令官・南小四郎少佐の全琫準捕獲当時の問答集が掲載されますがその後後備歩兵第19大隊関連の記事は途絶えてしまいます。

4月11日、『海南新聞』は全琫準について「彼の罪状が決定されるのもこの数日のうちだろう。いくぶんか国事犯の性質があるということから、またいくぶんかその心情に愛すべきものがあるということから、多分死刑を免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そうなるならばまたこの新政の一進歩である」と好意的に書いています。しかし4月23日、全琫準ら4名が死刑に、他の10数名が杖刑、遠島刑となりました。「新政」は進歩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しょう。

4月17日、日本と清国との間で、「朝鮮の独立」「遼東半島、台湾、澎湖諸島の割譲」「賠償金の支払い」などを内容とした日清講和条約が結ばれます。

7月31日の『海南新聞』は松山市北条出身の後備歩兵第19大隊兵士・河野十蔵の葬儀を報じます。彼は朝鮮国の仁川兵站病院に脚気症で入院していたのですが、7月11日死去、その遺髪が故郷へ運ばれました。7月31日には故郷で葬儀が開かれましたが会葬者は500余人いたそうです。

8月に入って松山から出陣していた歩兵第22連隊の復員が完了しますが、後備歩兵第19大隊はまだ朝鮮におかれたままです。9月12日、大本営から駐韓三浦梧楼公使へ電信が送られます。「新たに京城・釜山・元山に日本の歩兵を駐屯させることになっているのでこの際朝鮮国にある後備諸隊を帰国させよう」という内容でした。三浦公使はこれに同意しましたが交代の時期についてはしばらくの猶予を求めました。

こうして10月8日、三浦公使は当時京城守備隊であった後備歩兵第18大隊450人と朝鮮軍第2訓練隊を景福宮へ差し向け、日本軍派遣依頼に反対する朝鮮王妃・閔妃を殺害したのです。三浦公使はこの蛮行を決行するために後備諸隊の帰国を遅らせたのでした。四国出身兵の後備歩兵第19大隊はこの時景福宮のすぐそばの龍山に陣を構えておりました。閔妃暗殺事件との関係は不明です。

『海南新聞』はこの事件を細かく報じています。初期のものをみますと「去る10月8日の京城事変のおり、日本人民間人数名は日本が訓練を担当していた訓練隊とともに朝鮮王宮に突入しついに妃殿下を殺すに至ったと韓国人の間で言いはやされているが、これは風説にすぎず信ずるに足らないが、もし在韓日本人がこの凶行に加担するものがあつたとするならば、これは実に日本の善隣の方針にもとり、朝鮮の平和を妨害する無法の行為であるから、日本の当局者たるものは嚴重に取り調べをなし、すみやかにこれにたいする処罰を求め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10月20日付）とかなりまともな対応をしていたようです。しかし、結局は善隣の方針は捨て去られます。

さらにこれより一ヶ月後、当時朝鮮にいた愛媛県人・村松忠雄の大院君暗殺計画が発覚します。彼は郷里の友人に手紙を送り「自分は王妃の暗殺だけでは満足

できない。いまひとつの邪魔者である大院君の頭上に日本刀の切れ味を試したい」と伝えていたのが警保局（保安課には特別高等警察があった）などの知るところとなり逮捕されます。これも愛媛県出身の人間のしたことですのでここで報告しておきましょう。

(2) 後備歩兵第19大隊の帰国

【写真5】左の岡の向こう側に後備歩兵第19大隊が上陸した三津浜の浜辺があった。

写真位置

【写真6】上の写真の岡の後ろがこの三津浜港。狭くて軍艦は入れない。

写真位置

こういうことがあった後の12月3日からの『海南新聞』に、久しぶりに後備歩兵第19大隊が繰り返し登場し始めます。前日の12月2日、後備歩兵第19大隊第一陣96名の帰国が報じられます。後備歩兵第19大隊第1陣は午後7時敦賀丸で三津浜（Mitsuhamama）港に上陸しました。港には軍部の代表、県知事、県会議員、諸会社役員、松山高等小学校4年生、音楽隊などが出迎え、軍隊上陸中は花火を打ち上げます。汽車で一駅走り宿所のそばの停車場に到着すると、また学生や市民たち数百名が出迎えます。翌日から町々には昼は国旗を、夜は提灯を掲げ賑やかに歓迎したそうです。

この日の『海南新聞』には「後備兵たちの給与は現役兵より少額であるので、その家族の暮らしを助けるために、今回は後備兵1名につき一ヶ月3円の割合で臨

時軍事費から下賜されることになった」などの記事も載せられていました（1897年ころの1円は2万円ほど、との説あり。「小学校教員や巡査の初任給が月に8~9円ぐらい。一人前の大工が月20円ぐらい」だったそうです）。12月10日には後備歩兵第19大隊の残り、311名が乗った台湾丸が到着しこれで全員帰国しました。

【写真7】後備歩兵第29大隊の兵卒が宿泊した松山市・大林寺（Dairinji 절）。写真は日露戦争時のロシア人捕虜たち。

写真位置

(3) 後備歩兵第19大隊兵士たちの帰郷

後備歩兵第19大隊は松山で解散しましたが、故郷へ帰った隊員たちはどこでも大掛かりな歓迎儀式で迎えられたようです。『海南新聞』は県内各地の歓迎ぶりを伝えております。松山から南へ100キロの位置にある宇和島（Uwajima）にも朝鮮守備隊や台湾征討軍に従っていた兵隊たち17名が船で帰ってきました。町の有志100余名が埠頭に出向き出迎えました。凱旋兵の通路になる町筋には家ごとに国旗を立て、軒提灯などを出し、町には様々な飾り付けがなされ大変盛況であったそうです。また松山の東40キロにある小さな村・石根村（Iwane-mura）でも町の有志たちがこの村出身の兵士を迎えに松山まででかけともに帰り、翌日は村の寺で慰労会を催しました。あちこちにこのような行事がもたれそれぞれのやり方で兵士たちをねぎらったのでした。

最後に、後備歩兵第19大隊の兵士たちが帰国後どのような迎えられかたをしたか、そしてその後どんな暮らしをしたかがよくわかる例がありますので、ここで紹介しておきます。松山市から車で山道の国道を30キロほど西に上っていくと中山（Nakayama）という町があり、山間の国道をさらに西へ20キロほど下ってゆ

くと内子（Uchiko）という町があります。内子の町役所の横を通る道から山道を9キロほど登って行くと北表（Kitaomote）という小さな集落にたどり着きます。そこからさらに一本道の山道に入り、谷間にそってくねくねと上っていくと、谷間は棚田になります。山道はまだ続きますが、ここから上は森になっていて人は住んでいません。この棚田の谷間が泉谷（Izumidani）というところで、今日も谷を挟んでわずか三軒の家があるだけです。

【写真8】山奥の兵士の家。写真の左上隅です。

写真位置

いまから120年ほど昔、そのなかの一軒に、30キロほどはなれた村から養子として迎えられた青年・清水忠蔵(Shimizu-tyuuzoo)がいました。彼はまもなく後備歩兵第19大隊の兵士として召集されたのでした。朝鮮でどのような活躍をしたのかは知る由もありませんが、無事任務を終えて松山へ帰ってきました。松山へは歓迎委員が迎えに来てくれ、近くの村出身の戦友とともに松山を出発します。当時のことですから移動はすべて徒歩です。途中、山に入り中山で一泊します。中山には故郷・北表からも10名が迎えに来てくれていました。戦友の地元からも数十名が出迎えてくれました。翌日、内子に着くと、出身地の近い戦友には100名、そしてさらに山奥の彼自身の出身地・北表からも50名が出迎えました。彼は出迎えた村民たちとともに9キロの山道をたどり無事帰村、夜は50余名の人びとが発起者となって盛大な慰労会が開催されたそうです。さて、その後彼は再び家が三軒しかない山奥の集落での暮らしをはじめます。厳しい斜面の棚田で稲を作り、山に入って炭焼きに励みます。彼が炭焼き作業から帰って家の布団に入って寝入ると、布団に炭の粉やゴミが人型にすり込まれたそうです。幸い彼に再び出征の命令がく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彼の家系ではその後息子たちは兵隊に取られ

ずに済みましたが、孫が一人戦争に取られ戦死しています。

こうして帰国した後備歩兵第19大隊ですが、今日この部隊の兵士であった方の墓で私が確認しているのはこの方の墓だけです。しかし、子孫の皆さんは実際には祖父が何という部隊で何のために朝鮮へいったのかはご存知ないのです。もうひとかた仁川兵站病院でなくなられた松山市北条の河野十蔵さんはお孫さんとお会い出来ましたが、ここでも事情は同じでした。河野さんの家では家の墓地のどの墓石が祖父のものかも確認できていないのです。

東学農民軍の戦いを弾圧することによって日本の朝鮮支配の道を切り開いたといえる後備歩兵第19大隊の戦いはこのようにそのほとんどは忘れ去られています。『植民地朝鮮と愛媛の人びと』を広めて日韓友好の道に寄与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2011年8月29日執筆)

2011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충북의 동학농민혁명 주요 유적지

충주 가흥 안보 • 보은 북실 • 옥천 증약 • 청원 문의 • 청주

일시 | 2011년 8월 21일

장소 | 충청북도 일대

① 可興兵站部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가. 가흥병참부 옆에 건립된 2기의 위령비가 있었다. 하나는 비석에 새긴 것이고, 또 하나는 자연석 바위를 깎아 새긴 비이다. 두 비 모두 1894년에 세웠다. 비석의 크기는 가로 56cm, 세로 90cm, 너비 12.5cm인데, 하단부 일부가 잘려 나갔다. 또 자연석 위령비는 일본군 병참부가 위치했던 곳에 있는 언덕 절벽에 솟은 바위면을 깎아서 새긴 비이다.

가로 55cm, 세로 107cm이다. 비문은 현재 주민들이 훼손해서 판독이 되지 않으나, 훼손되기 이전에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3행 세로로 ‘대일본제국 용사 남해위삼랑군 지비 명치이십칠년십일월 유지건지(大日本帝國勇士南海爲三郎君之碑 明治二十七年十月日有志建之)’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나.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五.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二 (19)
[東學黨에 의한 지금까지의 死傷者 通報]

“可興兵站司令部 歩兵上等兵 酒向好五郎 憲兵上等兵 南海爲三郎”

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四. 東學黨에 關한 件 附巡查派遣의 件 一 (39)
[後備歩兵 第19大隊 運營上의 訓令과 日程表]

문서제목 1) [後備歩兵 第19大隊에 관한 件] 발송일 1894년 11월 9일

발송자 中佐 伊藤 수신자 全權公使 井上

삼가 아웁니다. 이번에 內地에서 倂견되어 온 후비보병 제19대대 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 지난 날 협의한 바 있사운데, 조선 조정에서도 이미 승낙했다고 하는 내용의 回電을 오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19대대에 별지와 같은 訓令과 일정표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귀관의 고견이 있으면 敎示해 주시기를 바라며 훈령과 일정표를 별첨, 지참하게 하여 협의차 특사를 보내오니 귀관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拜具. 후일 출발일시 등에 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4년 11월 9일

伊藤 中佐

井上 全權公使 殿

[別紙 1]

문서제목 동학당 진압을 위해 派遣隊長에게 내리는 훈령

발송자 仁川兵站司令官 伊藤祐義

동학당 진압을 위해 파견대장에게 내리는 훈령

1. 동학당은 현재 충청도 忠州·槐山 및 淸州 地方에 모여 있으며, 그 밖의 동학당은 전라도·충청도 각지에 출몰한다는 보고가 있으니, 그 근거지를 찾아내어 이를 剿絶하라.

2. 조선 정부의 요청에 의해 후비보병 제19대대는 다음 항에서 지적하는 세 개의 길로 나누어 진격하여 조선군과 협력, 沿道에 있는 동학당을 격파하고 그 화근을 초멸함으로써 동학당이 다시 일어나 後患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로 인정되는 자는 체포하여 京城 공사관으로 보내고, 동학당 거물급 간의 왕복문서, 혹은 정부 내부의 관리나 지방관, 또는 유력한 측과 동학당 간에 왕복한 문서는 힘을 다해 이를 수집하여 함께 공사관으로 보내라. 다만 겁에 질려 따르는 자에 대해서는 그 열성 정도를 보아 가리고 순순히 귀순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관대히 용서하여 굳이 가혹하게 다루는 것을 피하라. 단, 이번 동학당 진압을 위해, 전후로 하여 파견된 조선군 각 부대의 진퇴의 조절은 모두 우리 사관의 명령에 복종케 하며, 우리 군법을 지키게 해서, 만일 군법을 위배하는 자가 있으면 군율에 따라 처리하기로 조선 정부로부터 조선군 각 부대장에게 이미 시달되어 있으니, 세 갈래 길로 이미 출발

했거나, 또는 장차 출발할 조선군의 진퇴에 대해서는 모두 우리 사관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야 될 것임.

3. 보병 1개 중대는 西路, 즉 水原·天安 및 公州를 경유, 全州府 街道로 전진하여 그 진로에 근접한 좌우의 驛邑을 정찰하라. 특히 恩律·礪山·咸悅·扶安·萬境·金溝·古阜·興德 지방을 엄밀히 수색하고 더 나아가 靈光·長成을 경유, 南原으로 나가서 그 진로의 좌우 각 驛邑을 정찰하라. 특히 남원의 정찰은 엄밀히 하여야 한다.

보병 1개 중대는 中路, 즉 龍仁·竹山 및 淸州를 경유, 星州 街道로 전진하여 그 진로의 좌우 각 역읍을 정찰하고 특히 淸安·報恩·靑山 지방은 수색을 엄밀히 해야 한다.

보병 1개 중대는 東路 (우리 병참선로), 즉 可興·忠州·聞慶 및 洛東을 경유, 大邱府 街道로 전진하여 그 진로의 좌우 각 역읍을 정찰하고, 특히 좌측은 原州·淸風, 우측은 陰城·槐山을 엄밀히 수색해야 한다. 각 중대는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기맥을 통하고 가능한 한 합동하여 포위 초멸하는 방략을 취해 다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피해야 한다. 각 중대는 적의 무리를 소탕하여 그 패잔병이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경상도 낙동에 집합, 다음 명령을 기다릴 것. 대대 본부는 中路 分進隊와 함께 행진하라.

라.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권 七. 和文電報往復控 > (30) [可興에서의 강제 인 부모집에 관한 件] 9월 21일 오후 2시 40분 접수

발신 室田

大鳥 公使 殿

忠州 이웃인 可興里에서 人夫를 모집하려고 하여도 人民이 응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강제수단을 취하기로 當港 兵站監으로부터 電令이 있었다고 한다. 이것에 대하여서는 당국이 忠淸道 監司에게 명령하여 모집에 응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그러면 곧 강제수단을 취할 것인지 아닌지 答電을 기다리겠음.

마. 신영우, 「북집농민군의 충주 황산 집결과 괴산 전투」 『한국근현대사연구』, 2010

<논문 일부 수록>

하라다 소위는 북접농민군 근거지인 당동으로 척후병을 파견하였다. 이 척후병은 마침 읍내에서 15리 떨어진 애재에서 대규모 북접농민군과 조우하여 전투가 벌어졌다. 괴산 읍내로 진격하던 황산의 북접농민군과 정면 충돌한 것이었다. 『임동호 약력』에는 간략히 기술했으나 일본군의 전투보고와 조사보고는 상세하다.

同年 十月에 槐山으로 出陣하닌 道中 愛재라닌 洞里에서 日兵 三十餘人을 銃殺하고 同郡 邑에서 宿泊하고

11월 2일(음력 10월 5일) 괴산 지방에서 동학당이 봉기해서 괴산군수를 공격하려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러므로 같은 날 오전 10시 4분 충주를 출발, 오후 7시 30분 괴산에 도착하여 그곳의 정세를 탐색했더니 그날 밤은 이렇다 할 만한 일이 없었다. 다음 날 3일 오전 8시부터 一等軍曹 田島武臣·上等兵 宇佐美久次郎 2명에게 조선인 복장을 시켜 척후병으로 唐洞쪽으로 가게 했더니, 괴산으로부터 15리인 곳에서 적을 만났다고 급보해 왔다. 그래서 原田 少尉가 부하 병졸을 이끌고 그곳으로 출장, 장교 이하 27명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原田 少尉가 지휘하여 정면을 맡고, 또 하나는 田島 軍曹가 지휘하여 좌측을 우회하여 중간부를 쳤다. 적 진영은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다. 쌍방이 모두 좋은 성과를 올렸지만 아무래도 동학도의 인원이 3만 정도나 되어 도저히 지탱할 수 없었다. 특히 우리의 탄약이 금방 고갈되려 하므로, 노획한 물품에 불을 지르고 일시 괴산으로 철수하려 하였다. 그러나 동학도가 전투를 벌임과 동시에 셋길로 괴산에 들어와 불을 질러 연기와 불길이 충천하였다. 적은 무리가 많은 것을 의지하여 괴산을 지키고 우리 부대는 사면을 적에게 둘러싸였지만 한 쪽의 血路를 열어 같은 날 4일 오후 3시 15분 충주까지 철수하였다.³³⁾

33)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 (14) [忠淸道 東學黨 討伐狀況

10월 초 6일에 이르러 동도배 수만 명이 양쪽 길로 나누어 경내에 어지럽게 들어왔습니다. 때마침 일본 병사 25인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온 동도들은 일본 병사를 보고 대적하였고, 남쪽에서 온 동도들은 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대적하니 --- 남쪽 싸움이 불리하고 북쪽도 또한 패하여 일본 병사 1명이 죽고 읍의 관속 및 부락민 중에 죽은 자가 11명입니다. 창에 맞고 총에 맞은 중상자는 30여명이며, 읍내 5개 동의 민가가 불에 탔는데 탄 집들은 모두 500여 호입니다. 관아의 각 건물도 모두 부서지고 오직 客舍만 우뚝 혼자 남았습니다. 무기·집기·문부 등이 모두 불에 탔고, 환곡 40석·공전 8천여 金을 잃었습니다.³⁴⁾

바. 신영우, 「대한제국 시기 忠淸道 忠州의 住居生活」 『역사와 실학』. 2010 <논문 일부 수록>

가흥면에는 가흥역과 가흥창이 있다. 역 주위의 마을에는 7채의 기와집이 있었다. 이중 金千石의 기와집은 22칸의 저택이었고 초가 3칸이 부속채로 딸려 있었는데 이 집을 일본군이 병참소³⁵⁾로 사용하였다.

일본군이 가흥에 병참소를 설치한 것은 1894년 여름 청과의 전쟁을 위해 일본군 5사단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육로로 북상시킬 때였다.³⁶⁾ 이때부터 1902년 8월 양안을 만들 때까지 가흥에 8년 동안 병참소를 유지한 것이 확인된다.

가흥에는 또한 군용전신소³⁷⁾도 설치되었다. 이 전신소도 우곡평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은 병참소가 차지했기 때문에 전신소는 대지 196평에 초가 21칸의 커다란 집을 사용하고 있었다. 일본군 전신소는 청일전쟁 이후 조선과 만주에 배치되었던 일본군이 직접 정보 보고를 하고, 히로시마대본영과 참모본

및 戰況報告寫本 送付]

34) 『순무선봉진등록』 제3, 1894년 11월 15일.

35) 일본군은 부산에서 서울 용산으로 북상하는 요지에 병참시설을 만들고 소규모 병력을 주둔시켰지만 병참사령부라고 불렀다. 여기에서는 양안의 기록대로 병참소라고 쓰려고 한다.

36) 줄고, 「1894년 예천의 동학농민군과 보수집강소」, 『동학학지』 44집, 1984 ; 줄고, 「1894年 日本軍 中路軍의 鎮壓策과 東學農民軍의 對應」, 『역사와 실학』 33집, 2007.

37) 일본군은 電信局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여기에선 양안 기록에 나온대로 전신소라고 쓴다.

부의 작전 계획이 전달되던 통신망의 중간거점이었다. 서울에서 가흥으로 연결되어온 전신소는 문경·낙동 봉황대·장천·대구·밀양·부산으로 이어졌다.

충청도에는 가흥 외에 안보에도 병참소가 설치되었으나 광무년간 양전사업을 통해 조사된 곳은 가흥뿐이다. 가흥병참소가 설치된 우곡평의 필지와 대지 면적, 초가와 기와 칸수, 대주와 가주 이름은 다음과 같다.

<표 3> 가흥 일본군병참부의 건물과 대지면적

필지	대지 면적	초가	기와	대주 · 가주
우곡평 35	94	7	0	朴光烈
우곡평 36	119	5	5	朴興烈
우곡평 37	120	10	0	朴相玉
우곡평 38	101	15	0	朴相雨
우곡평 39	213	3	22	金千石
우곡평 41	110	10	0	朴相雨 · 威德玄
계	757평	50칸	27칸	

가흥의 일본군 병참소가 차지한 지역은 6필지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다. 우곡평 35에서 39호까지, 그리고 41호에 있는 것처럼 모두 이웃해 있었다. 더구나 남한강 유역으로 이어지는 곳은 넓은 밭이어서 대규모 군수물자의 야적에 적합했고, 주변을 내려다보는 높은 지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방어하기 쉬운 요지이기도 했다.

일본군이 차지한 대지 면적은 2,314척으로 약 757평이나 되는 것이었고, 군대 막사와 군수 창고로는 초가집 50칸과 기와집 27칸을 사용하였다. 이 대지와 가옥들은 가흥역에 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군은 당시 교통의 요지인 역도와 역사에 군용시설을 설치하였다.³⁸⁾

이와 함께 북변면에도 별도의 병참소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38) 안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안보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원후평 76, 대지 1283평, 초가 6칸, 기와 30칸(옹탈)

이곳은 일본군이 河潭으로 기록하던 병참소로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였다. 문경에서 안보를 거쳐온 무기와 군량 등 병참물자는 하담에서 배를 통해 가흥으로 운반되었다. 1894년 7월 24일(음력) 일본군 5사단 대부대가 북상하던 중 하담에 물자를 산적해놓고 있었던 것이 충주목사의 보고에 나타난다.³⁹⁾ 북변면의 연원역 자리를 빼앗아 사용한 일본군병참소는 무려 30칸의 기와집과 6칸의 초가집, 그리고 대지만 1,283평이 되는 큰 곳이었다.⁴⁰⁾

청과의 전쟁에서 정보 전달과 병참 지원의 거점 역할을 했던 가흥의 일본군 전신소와 병참소는 충주 일대에서 활약하던 동학농민군의 공격목표가 되었다. 동학농민군의 공세는 치열하였지만 여주와 이천의 일본군 병참소는 물론 용산에 주둔했던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점거를 면할 수 있었다. 의병들도 가흥의 일본군을 공격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제천이 의병 집결지가 된 것도 인근 충주에 일본군 병참소라는 공격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흥병참소를 일본군의 시각에서 보면 반일 세력을 진압하는 일종의 침병 역할을 했던 군사기지였다. 충주·제천·괴산·단양 등지에서 활동하던 동학농민군과 의병은 가흥병참소에서 파견된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많은 희생자를 내고 있었다.⁴¹⁾ 그러

39) 『錦藩集略』 甲午八月初三日. “接忠州牧使閔泳綺牒呈內去月二十四日日兵一千餘名騎馬七十餘匹二十五日一千餘名騎馬一百餘匹二十六日一百餘名又爲陸續過去而或止於官門二十里許荷潭津頭積峙糧料與兵器等物似爲長久而留陣或乘船又或從陸直向京城” 荷潭은 河潭의 誤記임.

40) 일본군의 내륙 병참선로는 부산에서 서울로 연결되었다. 문경에서 안보병참부를 거쳐 가흥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중간에 남한강을 건너야 하는데 河潭이 통로였다. 병력수송과 병참지원을 위한 별도의 군사시설을 두었을 것이지만 그 단서를 찾지 못했는데 양안에서 연원역의 병참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병참소로 사용한 커다란 가옥은, 應頤(세금 면제)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연원역 건물이었다.

41) 『동학농민혁명일지』(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편)의 일부 자료만 보아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1894년>

·9월 14일 가흥병참부 수비병, 단월에서 동학농민군 생포

·9월 18일 가흥수비병, 이천에 파견

·9월 21일 가흥병참부 수비병, 곤산에서 동학농민군 수색

·9월 27일 인천수비대, 가흥으로 진군

·9월 27일 송파진수비대, 40명 가흥으로 진군

·9월 27일 가흥수비병과 헌병, 가흥에서 역 천명의 동학농민군과 전투

·9월 30일 가흥수비병, 가흥에서 수천 동학농민군과 전투

한 일본군 군사시설이 양안 기록에 초가와 기와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② 安保兵站府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1894년 당시 연풍군 고사리면 대안보)

가. 신영우, 「북접농민군의 충주 황산 집결과 괴산 전투」 『한국근현대사연구』, 2010

황산 집결지에서 군사역량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던 시기에 연풍 일대의 북접농민군은 안보의 일본군병참부를 공격해서 최대의 전과를 올렸다. 9월 27일 새벽 6시 2천명의 북접농민군이 기습했는데 사방을 둘러싸고 여러 장소에 화공을 하며 격렬히 공격하였다. 이날은 그믐이 되기 나흘 전이라서 캄캄한 밤에 이동을 하여 미리 알아채지 못하였다. 안보병참부에는 일본군 주둔병이 38명이나 있었으나 고전을 하였고, 병참부로 사용하던 건물이 모두 불타버렸다. 전신선도 끊겨서 직접 보고조차 하지 못해 가흥병참부의 후쿠토미[福富] 대위와 문경병참부의 데와[出羽] 소좌⁴²⁾가 대신 보고하였다.

-
- 10월 1일 용산수비대, 가흥수비병, 보은 등지에서 동학농민군 격퇴
 - 10월 1일 낙동, 가흥수비병 보은에서 동학농민군 진멸
 - 10월 6일 괴산에서 격전을 벌인 하라다(原田) 소위, 가흥병참부로 귀대
 - 10월 9일 인천수비대, 가흥에 진군
 - 10월 12일 이토 중좌, 후비보병19대대의 1개중대에게 가흥 충주를 거치도록 훈령
 - 10월 19일 가흥수비병, 무극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
 - 12월 18일 가흥수비병, 장호원과 음죽 사이에 정찰대 파견
 - 12월 22일 제18대대와 가흥 정찰대, 장호원과 음죽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

<1895년>

- 1월 4일 가흥병참부 정찰대와 16대대 이시모리 중대, 최시형 순병회 등과 전투
- 1월 13일 낙동·태봉수비병 가흥 부근 파견
- 1월 13일 가흥수비병 여주 부근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
- 1월 14일 가흥수비병 여주에서 동학농민군과 전투
- 1월 15일 송파진 등지의 수비병을 가흥에 파견

42)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1) 韓國東學黨蜂起一件 121) 1894.10.26 [東學黨ノ我安封兵站部襲撃]. “十月二十六日[印] 大臣閣 參謀本部 兒玉少將宛 川上中將 今朝六時頃東學黨二千人余安

안보는 역이 있던 마을로 현재의 수안보에서 북쪽 작은 고개를 넘어가면 나오는 교통의 요지가 되는 곳이다. 당시에는 수안보를 온정리라고 불렀고, 병참부가 있던 마을은 대안보라고 하였다. 대안보에는 일본군이 군용전신소도 설치하였다. 안보의 일본군 병참부와 군용전신소는 청과 전쟁을 하고 있던 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일본 대본영이 있던 히로시마에서 전투장소였던 요동까지 증원병력과 군수품을 보내는 통로인 동시에 명령을 전달하고 각종 정보를 연결 하던 긴요한 군사시설이었던 것이다.⁴³⁾

더구나 이때는 일본군이 압록강을 건너 청국 영토로 침입해서 九連城을 점령 하는 등 청일전쟁이 확대되던 시점이었다.⁴⁴⁾

안보병참부가 공격받았다는 보고를 받자 이토 병참감은 이노우에 공사에게 즉 각 긴급 보고하였다.

[가흥지방 동학당 상황과 증원병 파견요청] 10월 27일(음 9월 29일) 오전 1시 20분 도착

지금 可興司令官 福富 大尉로부터 다음 보고가 있었다. 「어젯밤 安保兵站部가 東學徒 때문에 소실되었다고 한다. 아마 그런 원인으로 전신이 불통된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한 보고를 얻지 못하였다. 東學黨은 忠州 부근에 차차 그 수를 늘려 충주에서 동쪽으로 약 40리의 곳인 淸風 西倉이란 곳에 2만 명, 報恩에도 역시 수만 명의 동학당이 있어 불일간 충주를 습격한다고 한다. 또 이곳 남쪽 약 15리의 南巢

封兵站支部ヲ襲ヒ四方ヲ圍ミ 諸所ニ火ヲ放チ激シク攻撃ス守備兵三十八名ニテ苦戰ノ末漸ク擊退シ今尙追擊中ナリ賊ノ爲ニ電信ヲ切ラレ兵站監ヘ報告出來ズ故ニ直接ニ報告ス 聞慶 出羽少佐”

43) 『錦藩集略』 7월 25일자 기록에 연풍현감 韓鎭泰가 안보병참부와 전신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한 내용이 전제되어 있다. “7월 17일 --- 日本 中將 일행 30여 명이 방금 도착하였으며, 雇軍 355명을 연풍현에 통문으로 연락하여 내일 이른 아침에 色吏를 정하여 安保站에서 인솔하여 기다려 달라 --- 일본군들은 매일 30~40명, 혹은 40~50명 정도가 계속 이어져 끊이지 않았고, 또 전신을 가설한 후에 安保洞에 분국을 설치하였는데, 거의 수백 명이 여전히 머물고 있어서, 놀라서 흩어진 백성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일본군 中將은 평양전투를 지휘한 제5사단장 노즈 미치츠라 [野津道貫 1841~1908]

44) 『주한일본공사관기록』 3권, 七. 和文電報往復控> (103) [九連城 점령] “어제 25일 동틀 때부터 鴨綠江을 건너 적을 격퇴하고 오늘 오전 九連城을 점령하였음. 우리 사상자는 70명, 전쟁터에 있는 적의 시체는 무려 300명 이상, 노획품은 대포 34문, 기타 전리품은 무수하다.”

에도 그 당이 집합하여 바야흐로 이곳 병참부를 습격하겠다고 떠들어대며 인심이 평은치 못하다. 오늘 龍山의 원군이 도착하지 않아 내일 우선 南巢의 적을 소탕하고 그런 연후에 충주로 赴援하려고 한다. 단 병력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바, 더욱 약간의 원병을 洛東이나 혹은 용산에서 파견해 주기 바람.」

이 사건은 일본 정부에서도 매우 중시하였다. 「日本外務省外交史料館所藏文書」에는 이노우에 공사가 무츠 무네미츠[陸奥 宗光] 외무대신에게 즉각 보고하는 영문 기록이 있다.⁴⁵⁾

The following telegram received from count 井上 dispatch the following is for 總理大臣 安保兵站部 was burnt down 十月 二五日 during the night by 東學黨, interruption of our telegraphic communication might have been caused by the event. 東學黨 is gradually assembling in large numbers in the neighbourhood of 忠州, there being some 20,000 at 西倉 in about 4里 east of 忠州 and numbers of them at 報恩, they are reported to attack 忠州 in a few days.

이것은 일본군이 조선을 복상하는 병참망과 군용전신망을 설치한 후 발생한 가장 큰 사건이었다. 북접농민군의 공격으로 병참부가 불에 타고 전신이 단절된 것은 청국과 결전을 벌이고 있던 일본군에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영문 보고에는 충주 일대의 북접농민군에 관해 파악한 정보가 기록되고 있었다.

그러나 안보병참부를 공격한 북접농민군 지도자와 동학 조직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일본군은 충주 서쪽 40리에 위치한 청풍 서창의 북접농민군을 지목하고 있다. 청풍에는 成斗漢이 이끄는 조직이 있지만 이들이 안보병참부를 공격했다는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황산집결군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인지도 확

45) 앞 자료, 10월 28일자.

인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충주와 연풍 일대에서 활동하던 복접농민군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했을 것이다.

나. 대안보와 수안보

“수안보(水安保)”라는 지명은 “보(洑) 안쪽의 물탕거리” 라는 순수한 우리말이 한자로 변천된 것으로, 18세기 초 최규경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에 최초로 지명이 기록됨.

③ 보은 복실

가. 陸軍步兵少尉 桑原榮次郎

위의 사람은 우리 大隊가 東學黨 征討를 위해 전라도 지방으로 전진했을 때 軍路測量隊의 護衛가 되어 1개 소대를 인솔, 淸州와 報恩 부근에서 동학도와 전투, 몸에 輕傷을 입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그 지방 동학도를 전멸시키는 등, 공로가 있는 사람임.

나. 『소모사실』

12월 21일 의정부와 양호도순무영에 보고함[同日報議政府兩湖都巡撫營]

첩보하는 일입니다. 적도(賊徒)들이 11일에 경계를 침범하여 전투를 하였던 급박한 상황을 전에 이미 신속하게 보고하였습니다. 본관은 이달 19일에 안동 관포(官砲) 40명, 상주 별포(別砲) 40명 및 상주진(尙州鎭) 나포(羅砲) 10명을 데리고 화령으로 출진하여 군세를 서로 호응하였는데, 지금 도착한 김석중(金奭中)이 회군하여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달 초 8일에 청산의 서리와 군교가 와서 말하기를, ‘적도 수만명이 무주에서

영동으로 와서 설천과 월전 두 지역의 의병을 쳐부수고 자신들의 병력이 12만명이라고 떠벌리며 청산과 상주를 함락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초 9일에 대소민인이 빨리 와서 구해달라고 행군소(行軍所)에 아뢰었고, 그날 밤에 영동 수령도 편지를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또 본 경내 각처의 보고들도 끊임 없이 위급함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초 10일에 의병 포군 200 명을 데리고 영동의 접경 지역에 주둔하며 적의 정세를 탐문했더니, 적은 이미 영동을 함락하고 황간의 무기를 탈취하여 영동 용산시(龍山市)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본 고을 당남리에 난입했습니다.

11일 새벽에 군사들을 데리고 즉시 적의 예봉을 막고 전투를 하며 용산의 뒷골에 이르자 마침내 적들이 물러났습니다. 의병이 이들을 계속 추격하여 산골로 들어가자 적의 포군 수천 명이 좌우의 산 위를 둘러싸고 내려다보면서 총을 쏘아 총알이 비오는 듯하며 상황이 몹시 위태로웠습니다. 의병 포군들은 한참 동안 올라다보며 총을 쏘다가, 총을 한방씩 쏘며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나서 마침내 동쪽 맞은 편 산에 올라가서 일제히 총을 쏘자 총소리가 우레와 같았습니다. 비록 적들이 조금 위축되기는 하였으나 지세가 불리하고 중과부적이어서 부득이하게 군사들을 정돈시키면서 조금씩 후퇴하여 평지로 유인하자 적들도 매복이 있음을 알아채고 끝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신시(申時) 말까지 서로 대치하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울계(栗溪)로 가서 주둔하였습니다.

12일에 또 용산에서 총소리가 나서 구릉과 골짜기를 울리는 것을 듣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였더니 청주의 병정과 옥천의 의병들이 와서 적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40리를 달려가서 앞뒤에서 공격하려 하였으나 청주와 옥천의 병정들은 이미 달아났으며 적들은 승세를 타고 청산읍으로 들어가서 남김없이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군은 울계를 굳게 지키면서 각 고을의 원병들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일 새벽에 일본군 28인과 함께 청산읍으로 쫓아갔으나 적들은 이미 보은의 원암, 수피, 신리 등지로 주둔지를 옮긴 뒤였습니다. 이날 한밤중에 일본군 15인이

또 도착하였습니다. 17일 묘시(오전 5~7시)에 청산에서 출발하여 보은 수피에 도착하여 적의 정세를 탐문하니, 한 갈래는 원암에서 보은읍으로 들어가서 관사와 공해(公廩)의 문을 부수고 집 2채를 불사르고 그 재산을 탈취하였으며, 한 갈래는 수피 신리에서 풍취점(風吹店)으로 들어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상주의 부대가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두 진영이 합세하여 보은 북실(北實)에 웅거하며 동네입구 여러 곳에 불을 피워놓고 사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일본군 45인, 용궁과 함창의 포군 각 20명, 본 주의 병정 200명이 함께 귀인교(貴人橋)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그날 밤 해시에 군대를 두 갈래로 나누어서 한 갈래는 북실의 우측 산길로 향하고, 한 갈래는 왼쪽 촌길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오른쪽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비도(匪徒) 4 놈을 잡아 먼저 거괴의 소재지와 적의 정황이 어떠한가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거괴 최시형은 저녁 전에 본 동 김소촌(金召村)의 집에 있었으나 그 이후의 거취는 알지 못하며, 차괴인 임호(林昊, 임규호), 정대춘, 이국빈(李國賓), 손응구(孫應九, 손병희)는 함께 그 집에서 지금 밥을 짓고 술을 마시고 떡을 먹으면서 군대를 이동시킬 계획을 의논하고 있으며, 나머지 무리들은 민가 곳곳에 가득 차있고, 그 마을의 남녀주민들은 모두 다른 마을로 달아났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이곳으로 온 연유를 들으니, ‘본래 안성포(安城包)와 관동포(關東包)가 달포 전에 호남에서 17차례나 전투를 하고, 이달 초 6일에 무주에 들어가서 설천과 월전 두 지역의 의병을 격파했으며, 영동을 함락하고 황간의 무기를 빼앗아 영동 땅 용산시(龍山市)로 가서 웅거하면서 수석 이 판서의 집과 양반 정씨의 집 및 죽전의 민가 40여채를 불태우고 이 판서의 사내종 1명과 양반 노씨 2인을 총살하였습니다. 초 10일에 상주 산내 당남의 경내에 가서 바야흐로 상주로 진격하여 함락시키려고 하였으나 11일에 상주 군사들에게 쫓겨 용산으로 물러나 있다가, 12일에 또 청주 군사들과 전투를 하여 승세를 타고 청산읍까지 이르렀으며, 거기에서 2일을 머무르고 다시 상주로 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주 구원병들이 뒤를 추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보은, 원암, 수피, 신리 등지로 후퇴하여 2일을 머물렀으며, 또 상주 군사들이

이미 청산에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17일 밤에 모두 복실에 모였으며, 상주와 선산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달게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초한 뒤 4놈의 입을 즉시 봉하고 일제히 진격하여 먼저 여러 적과 있는 김소촌의 집을 포위하여 사방에서 총을 쏘아 5놈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불을 질러 시체를 태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왼편 산 위에서 총성이 들리면서 총알이 우박처럼 퍼부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쳐다보니 저들 무리들은 산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우리 병사들은 골짜기에 있으면서 싸움터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으며 다급하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시 초부터 더욱 전투를 독려하였는데, 일본군은 가운데에서 싸우고 우리 병사들은 사방에서 진격하여 함성이 산을 흔들고 총성이 골짜기를 울렸습니다. 날이 썰 때까지 싸우고 나서 사방을 둘러보니 적도들은 구름과 안개가 모여 있듯이 온 산과 골짜기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산에 있는 적과 아군의 높이가 현격히 차이 나고 군사들의 숫자도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적도들은 조수가 밀려오고 비가 퍼붓듯이 고향을 지르며 공격해 오는데 우리 군사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쳐다보니 모두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한 번 죽기로 서약하고, 일본군의 대오를 나누어 한 부대는 왼쪽으로 향하게 하고 한 부대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하였으며, 우리 군대는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곧장 앞으로 나아가 적과 부딪쳐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원숭이가 올라가듯이 한 걸음 전진할 때마다 총 한 방씩을 일제히 쏘면서 전진하였습니다. 산허리에 이르자 걸음이 더욱 빨라졌으며 산 위의 적들은 총을 쏘는 족족 거꾸러져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느새 아군이 산의 정상에 빼앗고 적들이 조금 물러가자 오른쪽의 일본군이 뒤이어 산 위로 올라와서 그들과 힘을 합하여 힘껏 싸웠으며, 왼편의 일본군은 영남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협공하였습니다.

한참을 싸우고 나니 시간이 이미 미시(未時, 오후 1~3시)가 되었습니다. 적세는 점차 위축되어 산을 오르고 고개를 넘어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승세를 타고 급히 총을 쏘며 10 리까지 추격하였습니다. 총으로 쏘아 죽인 자가 395명이었으며 그밖에 골짜기와 숲속에는 죽은 자들이 서로 포개져서 이어져 있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흩어진 잔당들이 사방으로 달아날 때 비로소 청주 군대와 옥천 의병이 앞쪽 산등성이에서 와서 손으로 잡고 총으로 쏘아 27명을 죽이고 달아나는 적의 뒤를 따라 곧장 남쪽 산의 뒷고개를 넘어갔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아군이 획득한 무기를 헤아려보니, 총 15자루, 환도 9자루, 활 1개, 창 42자루, 탄약 2짐, 깃발 10개, 나팔 1개, 북 5개, 소와 말 12필이었으며, 그밖에 양총(洋銃), 탄약 및 소와 말 등도 적지 않았으나 모두 일본인이 가져갔습니다.

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권 二. 각지 동학당 征討에 관한 諸報告

<鍾谷附近 戰鬥詳報>

1895년 1월 13일

少尉 桑原榮次郎

1. 군로실측대 호위로서 1소대(3분대 빠짐)를 이끌고 김산(金山)지방에 체재했다가 1월 3일을 기해 군로실측대와 함께 황간으로 향해 출발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3시쯤 황간현감으로부터 통보해 오기를 동학도 약 1만여 명을 최법현이 이끌고 전라도 무주로부터 행진해 와, 이미 황간 부근 옛 근거지인 서수원에 머물고, 바야흐로 황간을 습격하려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군로실측대와 함께 황간으로 가는 것을 중지하고 2명의 탐정을 내보내 그 실황을 수색하도록 했더니, 과연 통보해 온 내용과 같았다.

2. 1월 4일 적이 황간으로 내습하여 민가를 약탈하고 포악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려왔다. 그래서 같은 달 5일 군로실측대에는 병사 7명을 딸려 김산에 두고 小官은 하사 이하 14명을 이끌고 같은 날 오전 8시 출발, 오전 10시 황간에서 30리 남짓 떨어진 하리촌에 진출하여 동학도의 상황을 정찰했다. 그들은 길을 추풍과 패방의 두 고개로 잡고 김산을 향해 행진해 올 경황에 있었다. 그래서 이곳에 출장해 있던 韓兵을 지휘하여 요지를 택해 방어수단을 취하였다. 12시쯤 동학도의 척후 2명을 붙잡아 심

문하였더니, 수괴 최법헌이 이들을 이끌고 있으며 任局昊와 기타 4명의 수괴가 이에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오후 1시에 다시 더 척후를 내보내어 정탐했더니, 이들이 김산을 향해 나아갈 경황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단호히 이를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3. 같은 달 6일 오전 5시 황간을 향해 진진, 오전 10시쯤 황간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이미 용산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즉각 용산으로 뒤쫓았지만 해가 이미 황혼에 접어들었으므로 전초선을 펴고 경계하여 적과 대치하였다.

4. 7일, 아직 적의 상태를 상세히 알 수 없으므로, 척후를 내보내어 그들의 거동을 살피게 하는 한편 김산으로부터 탄약을 보충해 왔다.

5. 8일, 적의 배후를 찌르려고 새벽에 용산으로 갔으나, 그들은 이미 청산 방향으로 행진해 가 버렸다. 그래서 같은 달 9일 다시 울계로 진출해서 적의 동정을 정찰하였다. 9일 오후 9시쯤 낙동병참사령관 飛鳥井 소좌로부터, 응원부대로 낙동에서 1개 분대를 보내주었고, 대구에서 三尾 대위가 이끄는 1개 본대를 이끌고 이미 김산을 향해 출발했다고 알려왔다. 그래서 使者를 김산으로 달려가게 하여 낙동에서 파견되어 오는 1개 분대가 도착하는 대로 울계로 오라고 통지해 놓고 울계에 체재하면서 적의 정황을 살폈다. 그랬더니 그들은 청산에 모여 그 부근을 약탈하였다.

6. 같은 달 10일, 황간을 향해 행진해 오는 三宅 대위에게, 小官이 우리는 울계로부터 청산으로 진입할 터이니 귀관은 용산을 경유하여 청산으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여 협의하였다. 三宅 대위는 이에 동의한다는 회답을 해왔다. 또 이날 밤 11시 낙동에서 파견된 伊勢川 軍曹의 1개 분대가 도착하였다.

7. 11일, 靑山을 향해 행진했지만, 동학도는 이미 그곳에서 서남 10여 리에 있는 원암 방향으로 퇴각하고 그곳에는 한 사람의 동학도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三宅 대위와 합류하였다.

8. 12일, 오전 9시 원암 방향으로 행진해 갔는데, 도중에서 동학도는 이미 首皮·長安·보은 방향으로 퇴각했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래서 다시 그 방향으로 뒤쫓아, 청산으로부터 약 40리 떨어진 곳에서 동학도의 척후 2명을 발견했다. 또한 지방민의 정보로 본대가 종곡 부근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기에서 비로소 그들은 우리의 추격

에 앞서서 먼저 퇴각해야 하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그래서 단호히 야습을 단행하기로 결정하고, 오후 6시쯤 종곡에서 10리 남짓 떨어진 貴人橋에 이르러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9.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 이곳을 출발, 三宅 대위와 상주 한병 240명은 왼쪽 큰길을 행진하고 小官은 부하 14명과 伊勢川 군조 1개 분대를 이끌고 오른쪽 산길을 행진하였다. 이날 밤은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뼈골을 쭈셔 걷기에도 곤란하였다. 거의 5리 넘게 행진해 갔을 때, 전방에 불길이 오르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점점 가까이 가자 한 지방민을 만나 물어보니, 바로 동학도의 짓이라 하였다. 그래서 즉각 앞으로 전진하여 종곡 남쪽 고지(종곡에서 약 80m 떨어진 곳)를 점령하였더니 동학도 약 1만 명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각기 몸을 녹이고 있었으며 조금도 방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했으므로 이 부근 바람불이로부터 진군해 오는 三宅 대위에게 使者를 달려가게 하여 함께 공격에 착수하도록 통첩해놓고, 산개하여 약 세 번 일제 사격을 가해 그들의 정신을 교란하게 한 다음 돌입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허둥지둥 당황하여 마을 밖으로 무너져 달아났다. 약 1,000m를 추격하여 요지를 택해 점령하였다. 이때가 오전 3시였다. 三宅 대위도 와서 회동했다. 잠시 지나 그들이 또 몇 번 역습해 왔으므로 마침내 전투를 계속하면서 밤을 새웠다.

10. 13일 오전 7시경, 다시 공격하기 위해 약 500m를 전진하여 종곡 북쪽 고지를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전선배치는 완성되었고 그들도 고지를 점령하여 내려다보면서 우리와 맞섰으며 그 기세가 매우 사나웠다. 싸움이 한창 벌어졌을 때, 동학도가 우리의 양측으로 나와 우리를 포위하는 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앙으로 돌격해와 오만하기가 그지없었다. 오전 8시 小官은 그들을 가까이 다가오게 하여 공격하려고 앞으로 약 200m 전진, 잠시 동안 완만한 사격을 하다가 패주를 가장하여 본래 있던 고지로 돌아왔다. 그러자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돌격해왔다. 가까운 자는 거의 80m 거리 안에까지 왔다. 그래서 급히 사격을 가했더니, 오전 9시쯤에 이르러 동학도의 제1선이 조금 취약해 졌다. 이 기회를 틈타 우리 군대가 全線에서 돌격을 감행하였다. 동학도는 지탱하지 못하고 두 길로 나누어 동북쪽으로 무너져 달아났다. 약

2,000m를 추격하여 모두 소탕하였다. 이때가 오전 10시였다.

11. 종곡은 급양상 지장이 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오후 4시에 출발하여 보은에 이르러 적의 정세를 정탐하였다. 그랬더니 적은 북쪽으로 흩어져 달아나, 이 근방에서는 그들이 모인 곳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같은 달 15일 출발하여 청산을 경유, 16일 황간에 도착하여 본래 맡았던 업무에 임하였다.

◎ 彼我의 사상자

아군 없음

적도 전사자 300여 명, 부상자 미상

◎ 노획품

모젤총 몇 정(挺)

소와 말 80여 마리

무기 수십 점

깃발 10여 폭

◎ 탄약 소비 1,120발

④ 증악(增若)전투

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

(11) 增若附近 戰鬪詳報

1894년 11월 26일

少尉 官本竹五郎

1. 좌측 支隊는 제18대대 下士 이하 17명, 교도중대 1개 소대를 이끌고 오전 9시 회덕을 출발하여 周安으로 향했다.

2. 이 지대는 청산·영동·옥천·금산을 경유 전주에 이르러 본대와 합칠 예정이다.

3. 오전 11시 20분 주안에 도달했다. 1만 이상이나 되는 적이 크고 작은 깃발 50여 개를 세우고 북쪽으로 행진하는 것을 만났다. 그래서 조선군을 오른쪽 산에 일본군을 왼쪽 산에 진을 치게 하고 800m 앞까지 가까이 다가가자, 적이 세 방향으로부터 심한

사격을 가해왔다. 우리 군이 응전하면서 적 앞 400m 되는 곳에 당도하자, 적은 일본군을 향해 더욱더 급히 공격해 왔다. 그래서 조선군을 합세시켜 적 본진에다 급사격을 가해, 그 자리에서 110여 명을 쓰러뜨리고 적의 기세를 크게 꺾었다. 그러나 적의 우익군은 산을 타고 文義 방면으로 행진하고 그들의 본군과 좌익군은 우리 군대를 향해 일제히 급사격을 해왔다. 여기서 조선군은 겁을 먹고 퇴각했다. 적은 이에 힘을 얻어 이산 저산에서, “적군은 적다. 포위하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더욱더 북진해 왔다. 그래서 일본군으로 이를 막게 했다. 적은 성급히 지명을 건너 문의로 갔다. 문의의 현민 태반도 역시 이에 가담한 것 같았다. 우리 군대와 조선 군대를 지명에 모아서 문의로 철수했다.

4. 鎭南兵(약 30명)이 문의에 있었는데 그 대장이 와서 말하기를, “적의 한 부대가 연기 길을 막고 한 부대는 청주를 치려 한다.”고 했다. 그래서 청주로 되돌아와 적을 막으려 했다. 그런데 교도중대가 겁을 집어 먹고 싸울 기세가 없었다. 끝내 오후 12시 퇴각해서 청주로 갔다. 청주 남문 밖에 소수의 적이 있었다. 진남병이 접주 이하 16명을 붙잡았다.

◎ 彼我的 사상자

아군 없음

적 전사자 30여 명

부상자 미상

◎ 탄약 소비 1,432발

⑤ 문의(文義)전투

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六. 東學黨征討關係에 關한 諸報告

[文義附近] 戰鬥詳報

1894년 11월 23일

大隊長 歩兵少佐 南小四郎

賊徒의 情狀

1. 21일 본부와 제 3중대 및 교도중대는 淸州에 도착했다.

2. 22일 이른 아침부터 연기와 문의 방향으로 정찰대를 내보내 적의 정황을 수색케 했더니, 이 첩후가 오후 7시 20분 돌아와 보고하여 말하기를, “연기 방향에는 약간의 적도가 산 위에 있고 그 모습이 마치 초병 같았다. 그리고 서남쪽에서 총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문의에 갔던 정찰대의 보고로는, 문의현에는 소수의 적도가 있으며 미곡을 약탈했고 문의 남쪽 약 20리에 있는 至明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상과 같은 정황이므로 본부와 제3중대, 교도중대 및 鎭南營兵 약간은 11월 23일 오전 1시 30분 청주를 출발, 문의를 향해 전진했다. 오전 8시 문의에 도착해서 보니까 적도같은 자는 보이지 않았다. 하기가 인민은 모두 산 위로 도망쳐 숨어 있었다. 오전 11시 30분 전위소대가 지명(지명강) 북쪽 강기슭에 도착했을 때, 남쪽 강기슭에는 많은 적도가 모여서 (1만 2,3천) 시끄럽기 그지없었다. 이때 우리 첩병이 강을 사이에 두고 사격을 시작했고 전위 소대원을 첩병 왼쪽으로 증가시켰다. 11시 45분 1개 소대를 전위의 첩병선으로 증가시켰다. 오전 12시 왼쪽 방향으로 2개 분대의 첩후를 내보내 적도의 배후를 치게 했기 때문에 적도는 회덕과 주안 방향으로 흩어져 물러갔다. 0시 20분 전위소대와 증파했던 모든 대원을 지명강 남쪽 강기슭으로 집합시켰다. 0시 30분 본대로부터 2개 소대의 추격군을 내보냈지만 적도는 저항할 힘이 없어 모두 서남쪽으로 물러갔다. 오후 4시 30분 지명에서 철수, 문의로 돌아와 숙박했다.

◎ 彼我的 사상자

아군 전사자 없음

부상자 제18대대 一等卒 上野三藏가 추격차 나갔다가 지뢰를 밟음

賊徒 전사자 7명

부상자 미상

◎ 노획품

창 12자루

화승총 6자루

화살 천다발

깃발 수십폭

소 12마리

말 16마리

雜品 약간

말 6마리는 우리 대대에서 갖고 나머지 소와 말은 조선군이 달라고 해서 주었다.
창·화승총·화살·깃발·잡품은 그 자리에서 소각했다.

◎ 탄약 소비 600발

⑥ 청주전투 〈김개남군의 청주성 전투〉

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권 七. 各地東學黨征討에 관한 諸報告

淸州附近 戰鬪詳報

1894년 12월 9일

少尉 桑原榮次郎

1. 12월 8일 文義를 출발, 淸州에 도착하였다.
2. 같은 날 오후 8시 병마절도사가 와서 말하기를, “동학도 수십만이 청주를 향해 오고 있다. 공이 온 것은 실로 천우신조다. 구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12시 병마절도사와 營將으로부터 또 급보가 있었는데, 신탄과 문의 방향으로부터 수십만의 동학도가 청주를 향해 행진하여, 이미 30리 남짓한 곳에 와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즉각 응전할 준비를 하고 9일 오전 1시 다시 5명의 척후를 보내 정찰시켰다.
3. 9일 오전 6시 재차 보고가 있었는데, 신탄방향으로부터 동학도가 이미 청주에서 10리가량 떨어진 곳까지 행진해 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척후의 보고도 이와 같았다. 이에 小官은 下士 이하 18명을 이끌고 청주 남문 앞에 이르러 신탄 방향에서 오는 적을 맡았고, 三本 軍曹에게는 1개 분대 반을 인솔시켜 청주 남문 앞에서 대략 300m 가량 되는 곳에 있는 文義街道 옆면의 제방에서 문의 방향에서 오는 적을 대비케 하였다. 또 久門 軍曹에게는 나머지 대원을 인솔하게 하여 鐵道隊와 군수물자를 호위 하도록 하였다.
4. 같은 날 오전 6시 40분쯤 또 척후의 보고가 있었다. 신탄 방향으로부터 1만 56천 명의 동학도가 청주에서 1,500~1,600m 떨어진 곳까지 행진해 왔으며, 더구나 문의

방향에서 오는 동학도 약 1만여 명이 모두 신탄 방향으로 오는 동학도와 합세해, 오른쪽 방향으로 우회하고 있다고 하였다.

5. 小官은 淸州城에서 방어함이 불리하고 또한 공세로 전환하기에도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즉각 청주 서남문 앞의 고지(청주에서 600m 떨어진)를 점령, 잠복해서 그들을 기다렸으며, 오전 7시 20쯤 다시 三本 軍曹에게 전령을 보내 속히 이곳에 와서 오른쪽 적을 맡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이 드디어 전진하여 청주성에서 500m 떨어진 곳까지 왔을 때, 적은 맹렬한 사격을 개시하여 바야흐로 청주성을 함락시키려 하였다. 이 때 한국군 50~60명이 정면에서 방어하고 있었지만 대개는 퇴각하기에 바빴다. 여기에 이르러 적과 400m 떨어진 거리의 후방으로부터 이들을 내려보며 사격하였다. 적이 대략 4~5분간 응시했지만 끝내는 병기와 탄약·소·말들을 버리고 패주하였다. 이 때 오른쪽으로 우회하려던 적도 역시 신탄 방향으로 무너져 달아나고 우리 군이 이를 추격하였다.

6. 오전 8시쯤 적이 또 청주에서 10리가량 떨어진 신탄 방향 산 위에 모여 사격함에 따라 1시간 가량이나 적을 막아 싸웠다. 한때는 동학도의 소행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오른쪽 산 위로부터 급히 공격하고 다시 적의 뒤쪽으로 우회하여 적의 퇴각로를 차단하기에 힘썼다. 적은 다시 지탱해 낼 수 없어 신탄 방향으로 패주하였다. 다시 10리가량 추격하니, 적은 방어에 매우 힘썼지만, 끝내 감당해내지 못하고 분주히 달아났다. 이때가 오전 10시 40분이었다.

7. 다음 날 10일 오전 8시 1개 분대의 척후를 신탄 방향으로 내보내 적의 소재를 탐지하게 하였다. 적은 신탄진을 건너 공주 방향으로 퇴각했다고 하였다.

◎ 피아 사상자

我軍 없음

賊徒 전사자 20여 명, 부상자 미상

◎ 노획품

서류 약간

깃발 수십 폭

활과 살 수천대

모질총 신탄 140발

등근 총알 2,000발

구식대포 2문

소비탄약 1,130발

화약 150kg

소와 말 50여 마리

일본군 후비보병 제19대대 행군 및 숙박일정

지명 왼쪽 (支)는 枝隊 (支)1 (支)2의 숫자는 중대. 오른쪽 (滯)는 체재한 곳. (戰)은 전투한 곳.

月 日	西路 第2中隊	中路 本部 및 第3中隊	東路 第1中隊
11月14日	振威縣	龍仁縣	利川
15日	陽城縣 (支)平澤驛	陽知縣	長湖院 (支)加洞
16日	稷山縣 (支)牙山	竹山縣	可興 (斥)陰城
17日	天安 (支)牙山(滯)	竹山縣 (支)石城村(陰城西行20里)	可興(滯) (斥)槐山
18日	天安(滯) (支)新昌	竹山(滯) (支)陰城	忠州 (支)內倉場
19日	天安(滯) (支)禮山	鎮川 (斥)木川 (支)槐山	忠州(滯) (支)清風
20日	德坪 (支)沔川	鎮川 (支)清安	忠州
21日	公州 (支)德山(勝戰谷行)	清州 (支)沙羅里	忠州(滯)
22日	公州(滯)(戰) (支)洪州	清州(滯) (支)沙羅里(滯)	江原道の 東徒 토벌의 命을 받음. 그 動態등에 대해서는 모두 仁川 司令官으로부터의 命을 받았었음.
23日	公州(滯) (支)洪州(滯)	文義(至明戰) (支)報恩	
24日	公州(滯) (支)洪州(滯)	文義(滯)	
25日	公州(支) (支)洪州(滯)(戰)	文義(滯) (支)懷德	
26日	公州(滯) (支)洪州(滯)	龍浦 (支)增若(戰)	
27日	公州(滯) (支)洪州(滯)	文義 (支)懷德	

月 日	西路 第2中隊	中路 本部 吳 第3中隊	東路 第1中隊
28日	公州(滯) (支)洪州(滯)	文義(滯) (支)周安	
29日	公州(滯) (支)洪州(滯)	文義(滯) (支)增若	
30日	公州(滯) (支)洪州(滯)	增若	
12月 1日	公州(滯) (支)洪州(滯)	沃川 (支)石城村(戰)	
2日	公州(滯) (支)洪州(滯)	沃川(滯) (支)青山	
3日	公州(滯) (支)洪州(滯)	沃川(滯) (支)龍山村	
4日	公州(滯)(戰) (支)洪州(滯)	沃川(滯) (支)永洞(戰)	
5日	公州(滯)(戰) (支)大興(滯)	沃川(滯) (支)錦山(戰)	
6日	公州(滯) (支)維鳩	錦山	
7日	公州(滯)	錦山(滯)	
8日	公州(滯)	珍山 (支)錦山(滯)	
9日	公州(滯)	連山 (支)龍潭	
10日	公州(滯) (支)美江	連山(戰) (支)農山村 附近(戰)	
11日	論山(戰) (支)破軍里	魯城 農山村 附近(滯)	
12日	龍山幕 附近 (支)鎮岑	恩津 (支)鎮安(戰)	
13日	公州 (支)連山	恩津(滯) 栗谷邑 附近(戰)	
14日	華軒 (支)恩津	恩津(滯) (支)高山(戰)	聞慶 다시 全羅地方 賊徒를 토벌할 것을 명령받음
15日	恩津	恩津(滯) (支)高山(滯) (支)林川	台封
16日	恩津 (支)韓山		尙州

月 日	西路 第2中隊	中路 本部 및 第3中隊	東路 第1中隊
		(支)錦山 (支)高山(滯)	
17日		恩津 (支)龍安 (支)舒川 (支)錦山(滯) (支)益山	功成
18日		參禮 (支)東之同 (支)高山 (支)械亭里 (支)益山	開寧
19日		參禮(滯) (支)茂朱	金泉
20日		全州(韓日支) 東之同(全州에서 本隊와 합함) (支)茂朱(滯) (韓日支)金溝	知禮
21日		全州(滯) (韓日支)金溝(滯)(院坪戰) (支)茂朱(滯)	新昌
22日		全州(滯) (韓日支)金溝(滯) (支)安城場市	居昌
23日		全州(滯) (韓日支)泰仁(滯) (支)長溪店	安義
24日		全州(滯) (支)泰仁(本隊에 합함) (支)長水	咸陽
25日		全州(滯) (支)2川原 (支)長水(滯) (韓日支)井邑	雲峰
26日		萬馬關 (支)2川原(滯) (支)長水(滯) (韓日支)古阜 (韓人支)新洞	南原
27日		任實 (支)2長城 (韓日支)雲岩店 (支)魯唐店 (韓人支)興德	南原(滯)
28日		槩樹驛 (支)2大興 (韓日支)双岩里 (支)南原 (韓日支)高敞	南原(滯)
29日		南原 (支)2長城 (韓日支)淳昌 (韓日支)茂長	南原(本隊에 합함)
30日		南原(滯) (支)2長城(滯) (韓日支)淳昌(滯) (韓日支)茂長(滯)	
31日		淳昌 (韓日支)茂長(滯) (韓日支)淳昌(滯)(本隊에 합함) (支)1谷城 (韓)谷城 (支)2劍孫里	
1월 1일		淳昌(滯) (日支)靈光 (支)1谷城(滯) (支)求禮 (支)2劍孫里(滯)	
2日		潭陽 (韓日支)靈光(滯) (支)1玉果 (韓)求禮(滯) (支)2劍孫里(滯)	
3日		光州 (韓日支)靈光(滯) (支)1同福 (韓)栗峴洞 (支)2劍孫里(滯)	
4日		柳林村 (韓日支)加里 (支)1綾州(滯) (韓)北倉 (支)2東園里	

月 日	西路 第2中隊	中路 本部 吳 第3中隊	東路 第1中隊
5日	羅州(韓日支)咸平(支)1羅州(滯) (韓)北倉(滯) (支)2綾州		
6日	羅州(韓)務安(韓日支)咸平(滯) (支)栗里(支)1綾州(滯) (支)靈巖(支)元亭面(支)石峙(韓)光陽		
7日	羅州(滯) (韓)務安(韓日支)咸平(滯) (韓)光陽(滯) (支)1綾州(滯) (支)2兵營(支)2朝陽(戰) (支)乾山(本營內戰)		
8日	羅州(滯) (韓)務安(滯) (韓日支)咸平(滯) (韓)光陽(滯) (支)1綾州(滯) (支)2靈巖 長興早己(戰) (支)長興		
9日	羅州(滯) (韓)木浦(韓日支)咸平(滯) (韓)順天 (支)1綾州(滯) (支)2康津(支)長興(滯戰)		
10日	羅州(滯) (韓)木浦(滯) (韓日支)咸平(滯) (韓)樂安 (支)1綾州(滯) (支)2長興		
11日	羅州(滯) (韓)木浦(滯) (韓日支)咸平(滯) (韓)樂安(滯) (支)1綾州(滯) (支)古邑面(支)玉山村(戰)		
12日	羅州(滯) (韓)木浦(滯) (韓日支)咸平(滯) (韓)寶城 (支)1綾州(滯) (支)2大興面(支)2大興面(第三中隊와 合함)		
13日	羅州(滯) (韓)孟浦(韓日支)咸平(滯) (韓)寶城(滯) (支)1綾州(滯) (支)2七良長周(支)長興		
14日	羅州(滯) (韓)孟浦(滯) (韓日支)咸平(滯) (韓)寶城(滯) (支)1綾州(滯) (支)2康津(支)長興(滯)		
15日	羅州(滯) (韓)海南(韓日支)咸平(滯) (韓)寶城(滯) (支)1東倉(支)2海南(韓兵統衛와 合함) 海南(第三中隊와 合함)		
16日	羅州(滯) (韓日支)咸平(滯) (韓)長興 (支)1靈巖(支)2海南(滯)		
17日	羅州(滯) (支)海南(韓日支)咸平(滯) 康津(支) 1別辰驛(韓)長興		
18日	羅州(滯) (支)海南(滯) (韓日支)咸平(滯) (支)康津(滯) (支)1海南(統衛兵과 合함) (支)3康津(韓)長興(滯)		
19日	羅州(滯) (支)1海南(韓日支)咸平(滯) (支)海南(第一中隊와 合함) (支)3康津(韓)長興(滯)		
20日	羅州(滯) (韓日支)羅州(大隊와 合함) (支)1海南 (支)1康津(韓)長興(滯)		
21日	羅州(滯) (支)1海南(支)珍島碧波亭 (支)2康津(韓)長興(滯)		
22일	羅州(滯) (支)1海南(支)珍島府中(支)長興(滯)		
23일	羅州(滯) (支)1海南(滯) (支)珍島府中 (支)康津(韓)長興(滯)		

月 日	西路 第2中隊	中路 本部 및 第3中隊	東路 第1中隊
24일		羅州(滯) (支)1海南(滯) (支)珍島府中(滯) (支)3康津(滯) (韓)長興(滯)	
25일		羅州(滯) (韓)海南 (支)右水營(第一中隊와 合함) (支)3康津(滯) (韓)長興(滯)	
26일		羅州(滯) (韓)海南(滯) (支)1右水營(滯) (支)3康津(滯) (韓)長興(滯)	
27일		羅州(滯) (韓)海南(第一中隊와 合함) (支)1海南 (支)3康津(滯) (韓)長興(滯)	
28일		羅州(滯) (支)1海南(滯) (支)3康津(滯) (韓)長興(滯)	
29일		羅州(滯) (支)1海南(滯) (支)3康津(滯) (韓)長興(滯)	
30일		羅州(滯) (支)1海南(滯) (支)3康津(滯) (韓)長興(滯)	
31일		羅州(滯) (支)1海南(滯) (支)3康津(滯) (韓)長興(滯)	
2월 1일		羅州(滯) (支)1海南(滯) (支)3康津(滯) (韓)長興(滯)	
2일		羅州(滯) (支)1別辰驛 (支)3靈巖 (韓)長興(滯)	
3일		羅州(滯) (韓)靈巖 (支)1靈巖 (支)3羅州(本隊에 合함) (韓)羅州(本隊에 合함)	
4일		羅州(滯) (支)1羅州(本隊에 合함)	
5일		羅州(滯)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안내

동학민족통일회

동학민족통일회 소개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이념의 사회적 구현과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 목적으로 1991년 5월 11일 결성된 사회운동 단체입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동학과 천도교로 이어지는 찬란한 한국 근대 민족주의 운동사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그 정신을 수호해 민족창달과 변영의 민족사적 임무를 수행하고자 등장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동학과 천도교가 전개한 민족운동은 그대로 우리 민족의 수난사와 동일합니다.

동학은 위대한 민족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백오십여년 전 경주 용담정에서 수운 최제우 선생에 의해 시작된 동학(東學)은 당시의 국내외적 위기에 대처한 조선과 민중을 구원할 유일한 방책이 있음에도 가득권의 논리에 젖은 지배층과 외세 결탁세력들에 의해 철저히 탄압되고 또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도(道)를 주창한 이들을 탄압할 수는 있어도 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의 진리와 사람을 한울처럼 대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의 정신으로 각성된 민중은 드디어 1894년 갑오년의 동학혁명으로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선 것입니다.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동학이념은 우리 역사 오천년을 통 털어 최초로

각성된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개혁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니었는가 정도를 외면한 무능한 조정은 일제를 끌어들이 동학군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 결과가 조선의 일제병탄이었습니다.

천도교는 문명개화운동과 3·1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비록 동학혁명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동학 지도부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민중계몽을 위한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낮은 민도를 끌어올리고 하루빨리 문명개화의 대열에 참여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의식과 각성된 민족의식은 1919년 또 한번 조선 땅을 흔드니 그것이 기미년의 3·1운동인 것입니다. 천도교 3세 교주인 의암 손병희 선생의 계획과 지도 하에 전개된 3·1운동은 세계 최초의 비폭력 무저항의 시위운동으로 가장 강력한 민족운동이자 인권선언이었습니다. 인도의 타고르가 조선을 ‘동방의 빛’이라고 한 이유도, 간디가 감동해 인도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택한 것도 모두 3·1운동의 영향입니다.

천도교 청우당은 민족통합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 천도교는 청우당이라는 전위 단체를 만들어 교정쌍전의 의지를 실천합니다. 즉, 본격적인 사회운동 단체를 결성해 교(종교)가 아닌 정(정치)의 영역을 전담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우당은 일제하의 민중 계몽과 문화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청우당은 민족운동의 전위에 서서 자주독립국가를 완성하는데 전력을 다 했습니다. 분열되는 좌우 이념대립을 완화, 통합시켜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러나 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과 외세에 결탁하는 세력들에 의해 국토는 분단될 위기에 처해지고 청우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북협상에 참여하는 등 완전 자주독립국가를 완성하기 위해 최선

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현실이 되고, 청우당은 해체되고, 천도교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민족운동의 전통을 계승한 단체입니다

역사는 아직 우리 민족에게 더 많은 위대한 실천을 요구합니다. 오늘 동학민족통일회가 재등장하는 이유도 이 같은 선배들의 위대한 정신과 실천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동학민족통일회는 과거 동학 천도교의 위대한 이상과 실천성을 계승하고 그들이 구상한 지상천국 이상사회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숙명을 지닌 천도교 활동공간의 전위단체인 것입니다. 이에 동학민족통일회는 지금까지의 운동성을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운동단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동학이념에 입각한 인내천과 사인여천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땅에 시급한 과제에서부터 작은 손길이 필요한 영역까지 동학민족통일회는 쉽 없이 전진하는 사회단체로 활동할 것입니다.

동학민족통일회 강령

- 1 동학사상을 기본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한다
- 2 사인여천의 윤리로 도덕적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 3 경천·경인·경물의 삼경사상을 적극 실천한다
- 4 자유·평등·평화의 민주주의 발전을 기한다

동학민족통일회 주요사업 개요

통일기반 조성운동

정신개벽운동, 민족정기 선양운동, 인내천사상의 생활화 운동
삼경사상 실천운동, 근면·절약운동

종교간 화합 협력 운동

종교화합운동, 종교간 연대 사업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사업

월례통일강좌, 초청강좌, 통일순례, 특별연찬 및 강습회
초·중·고·대학생들을 위한 통일 학교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북한 천도교 청우당과의 연락 및 교류, 북측 인사 초청
북한 지원 및 공동사업 추진, 통일운동 민간단체와 공동행사 추진
남북한 민족성지 공동 개발 및 공동순례, 상설 연락 사무소 운영

생명·환경사업

환경학교 개설, 경물사상 실천운동, 자원 재활용 운동, 물사랑 운동
우리 쌀 사랑 운동

신문화 창조를 위한 신인간 운동사업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공동체운동

역사바로하기사업

일본의 역사 왜곡 바로잡기 교양, 제몽, 실천운동,
중국 동북공정 왜곡 시정 운동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는 시민협력, 역사, 교양 강좌

